

완벽한 자율학습서

완자

자습서 & 평가문제집 정답친해

고등언어와매체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위상

확인 문제

011~016쪽

- 1 ⑤ 2 ③ 3 ⑤ 4 (1) ○ (2) ○ (3) × 5 ④
6 ④

-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사고, 사회, 문화 중 어느 하나가 언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농사와 농기구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를 통해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경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한 말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처럼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가 담겨 있다.
- '아름다운 그림이 걸린'은 '미술관'을 수식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는 말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는데 이는 중심이 되는 말이 뒤에 오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1) 국어의 음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음운 대립이 있다. 즉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
(2) 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다. 국어의 마찰음은 /ㅅ, ㅆ, ㅎ/ 밖에 없다.
(3) 국어에서는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영어에서는 'spring'처럼 음절 하나에 여러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국어에서는 '스프링'처럼 세 음절로 나누어 발음한다.
- 제시된 내용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 일상생활에서 지역 방언을 고쳐 표준어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과 상관없다. 지역 방언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언어 자원이므로 아끼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요약 풀이 ①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고 우리말의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아름다운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 한국어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문화를 아끼고 지켜 가꾸려는 자세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이다.
- 텔레비전 방송 자막이나 인터넷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더 우리말을 잘 지켜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024~027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⑤ 05 ⑤ 06 ③
07 ① 08 ⑤ 09 ① 10 ⑤ 11 언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무분별한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노년층이 잘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에서 전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언어를 통해서 직업을 추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약 풀이 ① (나)에서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적 능력이나 사고력이 먼저 발달하면 언어 능력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 지역 방언을 통해 그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방언을 통해 그 사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이누이트의 언어에는 눈에 관한 단어가 많고,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의 원주민어에는 다양한 모래 명칭이 발달했는데, 이는 자연 환경이 언어에 영향을 미친 예이다.
⑤ 언어를 학습하다 보면 언어에 포함된 문화도 배울 수 있지만,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와 언어적 지식을 모두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은 언어와 사고의 상호 작용을 보여 주는 예이다. (나)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은 (나)와 관련이 있다.
㉡은 '옥수수'의 지역 방언들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이라도 지역 사회에 따라 언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다)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은 (다)와 관련이 있다.
㉢은 우리말에는 농기구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가 있다는 내용으로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가 담겨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라)에서도 우

리말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한 말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㉔은 (라)와 관련이 있다.

03 ‘가야금, 김장, 강강술래’와 같은 말에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인에게 그 뜻을 온전히 전하기는 쉽지 않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민경은 ㉑에서 번역을 통해 우리 문화를 나타내는 고유어도 외국인에게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번역을 통해서만 우리 고유의 문화가 담긴 우리말의 의미를 전달하기는 어렵다.

04 <보기>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고, 언어도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㉑ 역시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사람들이 ‘간호원’을 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간호사’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답풀이 ①, ②, ③ 언어에 문화가 반영된 예이다.
④ 언어에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예이다.

05 <보기>의 첫 번째 자료를 통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자료를 통해 한글은 그 원리를 이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㉑은 고유어의 특성이고, ㉒와 ㉔는 맞는 설명이지만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06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는 말(수식언)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피수식언) 앞에 온다. 이는 중심이 되는 말이 뒤에 오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문장에서 서술어가 원칙적으로 맨 뒤에 온다는 특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07 ㉑와 ㉒의 ‘나’는 문장에서 역할이 다르다. ㉑의 ‘나’는 조사 ‘는’과 결합하여 주어이고, ㉒의 ‘나’는 조사 ‘와’와 결합하여 부사어이다. 국어에서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문장에서 역할이 달라진다.

|오답풀이 ㉑, ㉒, ㉔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위치하였으며 어순이 조금 달라도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㉑는 꾸미는 말인 ‘아름다운’이 꾸밈을 받는 말인 ‘목소리’의 앞에 위치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이 ‘소녀’를 수식해 주므로 역시 꾸밈을 받는 말이 문장의 뒤쪽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중심이 되는 말이 문장의 뒤쪽에 오는 국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08 ‘그 프로젝트를 디벨롭해서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바꾸어 보도록 하죠.’는 우리말로 충분히 바꾸어 쓸 수 있는 표

현도 외국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프로젝트’는 ‘연구, 사업, 계획’ 등으로, ‘디벨롭해서’는 ‘발전시켜서’로, ‘크리에이티브하게’는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한자어나 외래어의 범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있다’의 높임말인 ‘계시다’를 사용하고, 종결 어미 ‘-요’와 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성격만’과 ‘성격도’에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되어 있는 국어의 특성이 드러난다.
③ ‘방긋방긋’이나 ‘아장아장’에서 상징어(의태어)가 발달한 국어의 특성이 드러난다.
④ ‘불그스름한’이나 ‘시뻘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09 ㉑의 ‘나는 사과를 좋아해.’는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어순이고, ‘I like apples.’는 ‘주어 – 서술어 – 목적어’의 어순이다.

10 ‘chalk(초크)’는 ‘ch’를 여러 개의 음운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자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절 하나에 여러 개의 자음이 첫소리에 올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11 <보기>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기사에 은어를 사용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정체불명의 은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언어문화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단순히 재미있다는 이유로 정체불명의 말들을 사용하는 일이 일상화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무분별한 은어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제시된 학생들의 언어문화의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

확인 문제

029~031 쪽

1 ㉔ 2 ㉑ 3 (1) × (2) ○

- 1 매체의 발달은 우리의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언어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매체의 발달이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뉴 미디어는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나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공유도 활발해졌다.
- 3 (1) 현대 사회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음성이나 문자, 그림, 소리 중 어느 하나만을 활용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문자 언어가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은 복합 양식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합 양식성이란 하나의 매체에서 말, 그림, 몸짓, 음악 등의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038~041 쪽

-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② 08 복합 양식성,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때 음성이나 문자, 그림, 소리 중 어느 하나만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매체 언어를 함께 활용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09 ③ 10 ⑤

- 01 매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매체의 발달은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언어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③ 매체는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매체는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④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매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⑤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를 일컫는다. 즉 매체 언어는 매체에서 의미 작용을 하는 모든 언어와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기존의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뿐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까지를 아우른다.

- 02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체 언어가 발달하여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03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단일 매체로는 통합적인 실현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소리,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통합되면서 매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단일 매체와 복합 매체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4 (가)에서는 뉴 미디어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뉴 미디어의 특성과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의 특성을 대조하고 있다.

- 05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수용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다. 또한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기 위해 많은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반면 뉴 미디어는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다.

- 06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로, 뉴 미디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07 뉴 미디어는 기존의 독립적 매체들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서로 연결한다는 특성이 있다. 뉴 미디어는 여러 가지 매체의 속성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도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게임은 음성, 이미지, 문자, 영상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 양식성의 특성을 지닌다. 온라인 게임은 대화 참여자들이 음성을 사용해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음성 언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음성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매체라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 뉴스 기사 또한 복합 양식성을 지니는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리,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을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 08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때 음성이나 문자, 그림, 소리 중 어느 하나만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매체 언어를 함께 활용하는 특성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글에서 찾아 두 어절로 제시하였다.	☐
복합 양식성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

- 09 <보기>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이라는 두 매체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먼저 촬영한 부분을 편집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방송한 것인데, 방송 내용 중 인터넷 생방송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뉴 미디어의 쌍방향적 소통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전달하고, 이에 출연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수용자와 생산자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많아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보기>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10** (다)는 매체 언어(뮤직비디오)이므로, 단일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다)는 문자, 음성, 소리,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 언어이므로 복합 양식성의 특성을 지닌다.

대단원 평가 문제

044~049쪽

- 01** ⑤ **02** ② **03** ④ **04** <보기>처럼 우리말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했으며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5** ④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①
15 ① **16**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 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7** ③ **18** ②
19 ①

- 01** 언어는 지역이나 계층,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부추’를 가르키는 말은 ‘푸초, 염지, 솔, 정구지’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신분 제도가 있었던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인간은 사회 혹은 사회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02** <보기>는 사고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나타낸 예이다. 언어마다 색의 종류와 가짓수를 다르게 인식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색을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 03** <보기>의 ‘직원’은 대화 장소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초면인데도 비격식체인 해체로 대화를 이어 나간 것이다. ‘직원’과 ‘민원인’은 처음 본 사이이므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므로 <보기>를 통해 ④의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 04** ‘고모, 이모, 큰어머니(백모), 작은어머니(숙모)’를 의미하는 영어는 ‘aunt’이고, ‘친삼촌, 외삼촌, 큰아버지(백부), 작은아버지(숙부)’를 의미하는 영어는 ‘uncle’이다. 이처럼 다른 언어에 비해 우리말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이러한 어휘의 발달 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족 공동체를 중시했으며,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제시된 어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였다.	☐
<보기>에 제시된 어휘의 특성을 통해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유추하여 서술하였다.	☐

- 05** 경상도의 “뽕라카노?”, 전라도의 “뽕뽕시”, 제주도의 “어드레 감쭈과?” 등은 지역 방언으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①, ②, ③, ⑤는 언어와 문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06** 학생이 영어 단어의 ‘boat’와 ‘vote’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영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다. 영어에는 마찰음 /v/가 있지만, 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학생이 /b/와 /v/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 07** 국어에서는 어미 ‘-었-’, ‘-겠-’ 등을 통하여 각각 과거 시제, 미래 시제나 의지 등을 표현하며 조사를 통해 문장에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열심히’의 ‘-히’는 조사나 어미가 아니라 접미사이다.

- 08** ③은 ‘그곳에서 드디어’의 위치를 옮겨 두 문장의 어순이 다르지만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므로 ㉠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학교를’이 ‘학교에’로 바뀌었으므로 어순이 아닌 조사가 바뀌었다.

② ‘수아와’가 ‘수아는’으로, ‘진아가’가 ‘진아와’로 각각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가 바뀌었으므로 문장 성분도 바뀌었다.

④ ‘아름다운’이 ‘꽃이’ 앞에 위치할 때에는 ‘꽃이’를 꾸며 주지만, ‘책상’ 앞에 위치하면 ‘책상’을 꾸며 준다. 수식언과 피수식언의 위치가 달라지면 어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⑤ ‘식탁 위에 있던’이 ‘치즈를’ 앞에 오면 치즈를 꾸며 주고, ‘생쥐가’ 앞에 오면 생쥐를 꾸며 주므로 어순이 바뀌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09 ‘당신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의견을 참고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다. 이는 거절의 의사 표현을 발화의 앞부분에 제시했으므로 중심이 되는 말이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은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서술어에 결합하여 높임을 실현한다. ‘선생님께서 실망하실까 봐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에서 높임의 대상은 주어인 ‘선생님’이고 ‘실망하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하여 ‘실망하실까 봐’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습니다’, ‘-요’ 등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제가 오늘 숙제를 못했어요.’에서 주어인 ‘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③ ㉠에서 ‘마저’는 하나 남은 마지막이라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보조사이다. 이처럼 국어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되어 있다.

④ ㉠에서는 목적어인 ‘숙제를’이 생략되어 있고, 서술어인 ‘숙상 하구나’의 주어인 ‘선생님이’가 생략되어 있다.

11 우리말은 영어와 다르게 조사나 어미를 첨가하여 문법적 역할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과 ‘엄마가 나를 부르신다.’는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문장의 어순이 같다.

② 목적어가 주어 앞에 위치하면 ‘너를 내가 사랑해.’가 되므로 우리말에서는 그 의미가 같다.

③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서술어 앞으로 옮겨 어순을 변경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⑤ ㉠과 ㉡의 어순은 다르다. 우리말인 ㉠의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고, 영어인 ㉡의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이다.

12 ‘champion(챔피언)’은 세 개의 음절로 나누어 발음하는데, ‘ch’가 하나의 자음으로 소리 나므로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는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줄줄’ ‘줄줄’, ‘파닥파닥’과 같은 상징어가 고유어에 발달해 있는데, 이러한 상징어는 양성 모음(ㅏ, ㅑ)와 같이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ㅓ, ㅕ)와 같이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다.

② 미묘한 색의 변화를 표현하는 어휘들은 우리 국어의 특성으로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③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하는

데 이와 같은 음운 대립은 우리말의 독특한 음운적 특성으로 외국인이 이 세 자음의 발음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④ 우리말의 마찰음은 ‘ㅅ, ㅆ, ㅎ’ 세 개로 외국어에 비해 그 수가 적다.

13 (가)에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 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한다면 컴퓨터와 휴대 전화에서 영어와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비교한 자료보다, 외국어와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을 비교한 자료가 더 적절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환경 속에서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이 틀린 방송 자막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②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미국의 고등학교 수를 제시할 수 있다.

③ 해마다 늘어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수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다.

④ 한국어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우리도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생활을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체불명의 비속어나 새말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언어생활의 실태를 나타낼 수 있다.

14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자주 섞어 사용한다면, 우리말 고유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세계화 및 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5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보급할 수 있지만,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많은 자본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이지 않다.

|오답풀이| ㉠에 비해 ㉡은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 정보나 지식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교류도 용이하다. 또한 ㉡은 정보에 접근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약하고, 기존에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통합했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 예로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골라서 시청하거나 들을 수도 있다.

16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 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한글은 뉴 미디어(new media, 새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자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한글이 뉴 미디어에 사용하기 적합한 언어인 이유를 (가)에서 찾아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쓸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

- 17** 1인 미디어에서 개인 출판이나 방송을 하는 것은, 기존의 텔레비전처럼 공식적 경로로 대량 송출되는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1인 미디어로서의 블로그는 새로운 전달 매체로, 블로그에서 제시한 내용을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8** 인터넷 방송과 같은 다양한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기존의 대중 매체는 주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었는데, 1인 방송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서는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방송을 제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도 보다 다양해졌다.
- 19** 복합 양식성은 한 매체에서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여러 양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 의사소통의 큰 특성이다. 음성 통화를 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지만 이는 복합 양식성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고득점 평가 문제

050~051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③

- 01** ㉔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⑤에서 ‘고구마’가 ‘달콤한 감자’라는 사고를 언어에 반영하여 ‘참감자’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㉔의 견해에 가까운 서술이다. 단, ‘참감자(고구마)’라는 어휘에는 ‘달콤한 감자’라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고, 또한 이 단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어 고구마가 감자와 유사한 식물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는 내용이 함께 제시된다면 ㉔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02** <보기>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로 분단으로 인한 남과 북의 언어 차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㉔은 지역의 차이가 언어로 나타난 예이므로 지역 방언으로 볼 수 있다. ㉔은 언어 순화 과정에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한 예이다. 이는 남과 북의 사회적 체제 차이에서 언어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므로 사회 방언

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㉔은 문화어 운동을 통한 언어 순화 과정에서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한 예이다. ㉔, ㉕은 이념 및 사회 체제의 차이가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 예이다.

- 03** 격 조사 ‘을’과 다르게 보조사 ‘만’과 ‘도’는 각각 ‘단독’, ‘다른 경우도 포함’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국어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4** “철수야, 너 밥 먹을 시간이야.”의 표현은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주어와 목적어 자체가 생략되어 있지는 않다.

2 담화와 문장의 탐구 및 활용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확인 문제

057~060 쪽

- 1 (1) 담화 (2) 화자, 청자, 맥락, 발화 2 ⑤ 3 통일성, 응집성
4 ③ 5 ㉠, ㉡ 6 ②

- 1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형식을 담화라고 한다. 그리고 담화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인 맥락,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인 발화이다.
- 2 ㉠은 대화의 상황(여자가 남자에게 날씨가 추울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전달했음에도 남자가 옷을 얇게 입고 온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어적 표현을 통한 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찾집'을 의미한다.
② ㉠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에는 상대의 호의를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을 겸손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다.
③ ㉠은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한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④ ㉠의 의미는 언어적 맥락, 즉 발화의 앞뒤에 놓인 발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의 의미는 대화의 상황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3 담화가 완결된 구조를 이루려면 내용적 측면의 통일성과 형식적 측면의 응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일성은 담화 내의 발화들은 통일된 주제 아래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응집성은 발화가 형식적 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는 주제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발화로 담화의 통일성을 해친다.
- 5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려면 적절한 대응 표현과 접속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대응 표현은 이미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자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접속 표현은 두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 6 자발적 실업(마찰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을 대조하여 실업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반면에'와 같은 역접의 접속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067~069 쪽

- 01 ⑤ 02 ⑤ 03 ② 04 (가)는 나이에 맞지 않게 피아노를 잘 친다고 감탄하는 상황이므로 '너는 몇 살인데 어린이가 같지 않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라는 의미이다. (나)는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상황이므로 '나이를 먹었으면 제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지!'라는 의미이다. 05 ① 06 ③
07 ② 08 ③ 09 ①

- 01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상황 맥락에,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포함된다.
- 02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형식이다. 이러한 담화의 개념으로 볼 때 “늑대다!”는 발화가 연속되어 이루어진 말이 아니므로 담화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늑대다!”는 말 한마디로도 늑대가 나타난 위급한 상황을 마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담화로 볼 수 있다.
- 03 ‘뭐 먹을 거야?’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묻는 발화이므로 의문문인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발화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화자의 의도는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③ 발화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화자의 의도는 창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④ 발화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화자의 의도는 자리를 비켜 달라는 요청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⑤ 발화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화자의 의도는 텔레비전을 그만 보고 숙제를 하라는 명령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 04 (가)에서 “너 몇 살이니?”는 어린이가 나이에 맞지 않게 피아노를 잘 친다는 칭찬 및 감탄의 의미이다. (나)에서 “너 몇 살이니?”는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질책의 의미이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의 관계,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 등 상황 맥락에 따라 동일한 발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
(가)의 상황 맥락이 '칭찬, 감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나)의 상황 맥락이 '질책'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 05 '지원'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갔던', '떡볶이', '튀김' 등의 언어적 맥락을 활용하여 '하람'이 말하는 '거기'가 '○○분식점'임을 파악하였다. 언어적 맥락이란 담화 내에서 어

떤 발화의 앞뒤에 높은 발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이다.

06 친구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자신에게 현재 시각을 알려 달라는 의미이며,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약속 시간에 늦었음을 질책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7 (가)의 작가인 이방원은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해 ‘만수산 드령춤’의 비유를 통해 새로운 왕조를 함께 세울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나)의 작가인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조선 창업에 대한 동참 권유이고, (나)의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다.

08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두 문장 모두 ‘금수회의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인 ‘그러나’는 두 담화를 이어 주는 접속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데’ 또한 뒤 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이므로 ‘그러나’를 ‘그런데’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 접속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앞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쓰여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인 ‘즉’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은 ‘탁자 아래’의 대응 표현으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 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인 ‘거기’나 ‘그곳’ 정도가 적절하다. ㉡은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인 ‘그리하여’ 정도가 적절하다.

(2) 문장의 짜임과 활용

확인 문제

071~075 쪽

- 1 ④ 2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3 ① 4 (1) × (2) ○ 5 ② 6 (1) 명사절 (2) 명사형
어미 ‘-기’ 7 (1) 뒷다리가 길다 (2) 서술절 8 ① 9 ④

1 ‘물이 정말 맑다.’는 ‘주어+부사어+서술어’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따라서 밑줄 친 ‘정말’은 서술어 ‘맑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2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3 ①은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다. ②는 연결 어미 ‘-으면’, ③은 연결 어미 ‘-는데’, ④는 연결 어미 ‘-려고’, ⑤는 연결 어미 ‘-어서’로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인 의미 관계를 맺고 있다.

4 (1) 안은문장이 안긴문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둘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2)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속에 절의 형식으로 안겨 있는 문장이므로 알맞은 설명이다.

5 ‘우리가 만든’은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실현된 관형사절이다.

6 ‘그가 행복하기’는 ‘그가 행복하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이 명사절은 ‘나는 그가 행복하기를 기도한다.’라는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7 ‘토끼는 뒷다리가 길다.’에서 ‘토끼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뒷다리가 길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8 문장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가 붙고, 간접 인용할 때에는 인용 부사격 조사 ‘고’가 붙는다. 따라서 ㉠에는 ‘라고’가, ㉡에는 ‘고’가 와야 한다.

9 ④는 ‘내가 내일 아침에 먹을’이라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①은 서술절 ‘재주가 있어.’를, ②는 인용절 ‘바로 돌아온다는’을, ③은 관형사절 ‘형사에게 붙잡힌’을, ⑤는 부사절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을 각각 안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081~083 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보기>의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8 ⑤ 09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01 ①은 안은문장의 주어 ‘나는’과 서술어 ‘보았다’뿐 아니라 안긴문장의 원래 홑문장 형태인 ‘별이 아주 크다.’에서

주어 ‘별이’와 서술어 ‘크다’의 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오답풀이 ② 주어 ‘이제부터는’과 서술어 ‘걷자’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③ 주어 ‘내 머릿속에는’과 서술어 ‘너뿐이야’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④ 주어 ‘현주가’와 서술어 ‘연주한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⑤ 주어 ‘한 마디가’와 서술어 ‘무너뜨렸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02 이 글의 마지막 문단으로 보아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이다.

03 ㄷ은 ‘그는’-‘걸었다’, ‘코스모스가’-‘흐드러지다’, ‘코스모스가’-‘피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04 ㄷ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연결 어미 ‘-으나’를 사용하여 앞 절인 ‘하늘이 잔뜩 흐렸다.’와 뒤 절인 ‘비는 오지 않았다.’가 대조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ㄹ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앞 절인 ‘사람은 책을 만든다.’와 뒤 절인 ‘책은 사람을 만든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ㅁ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연결 어미 ‘-거나’를 사용하여 앞 절인 ‘나는 여가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와 뒤 절인 ‘나는 여가 시간에 책을 읽는다.’가 선택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ㄱ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연결 어미 ‘-(으)면’을 사용하여 앞 절인 ‘공기가 맑다.’가 뒤 절인 ‘물도 맑다.’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연결 어미 ‘-어(아)야’를 사용하여 앞 절인 ‘가는 말이 곱다.’가 뒤 절인 ‘오는 말이 곱다.’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05 ‘-더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 절의 사실을 양보하여 가정하나 그것이 뒤 절의 내용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낸다.

06 ‘나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종종 찾는다.’는 앞 절 ‘나는 일출을 보다.’와 뒤 절 ‘나는 이곳을 종종 찾는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뒤 절의 ‘이곳을’은 ‘나’가 찾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 절의 ‘일출을’과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이 문장의 경우 앞 절과 동일한 표현인 ‘나는’이 뒤 절에서 생략되었다.

07 <보기>의 문장은 앞 절인 ‘흐르는 세월은 멈출 수 없다.’와 뒤 절인 ‘흐르는 물은 멈출 수 있다.’가 연결 어미 ‘-지

만’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지만’은 앞의 말을 인정하면서 뒤 절에 그와 상반되는 사실이 이어짐을 나타내므로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임을 서술하였다.	☐
<보기> 문장의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08 ㉠이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인 것은 맞지만, 이 부사절은 뒤에 오는 ‘돌이와’가 아니라 서술어 ‘놀았습니다’를 수식하고 있다.

09 ‘밖에 나가기가’는 명사절 ‘밖에 나가기’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그가 정당했음을’은 명사절 ‘그가 정당했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학교에 가기에’는 명사절 ‘학교에 가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3)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확인 문제

085~095쪽

1 종결 어미 **2** ③ **3** ④ **4** (1) 할아버지 (2)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높임을 실현함. **5** ② **6** ①
7 ③ **8** ㄷ, ㄹ **9** ⑤ **10** ⑤ **11** ② **12** (1) 도망치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2) 헤지가 준수에게 밀렸다.
13 ③ **14** 회피 **15** ⑤ **16** (1) 지수에게 공을 차게 하였다. (2)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 / 아기에게 우유를 먹게 한다.
17 ⑤ **18** 부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강세를 주어 구별하거나, 보조사를 사용한다. **19** ④

1 첫 문단에서 국어의 종결 표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종결 어미임을 설명하고 있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2 ③은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①은 하계체, ②는 해라체, ④는 하오체, ⑤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3 ④는 목적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높임의 대상이 객체이다. ①은 ‘삼촌’을, ②는 ‘할머니’를, ③은 ‘할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높임의 대상이 주체이다. ⑤는 '선생님의 말씀'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4 '언니가 할아버지께 물을 가져다 드렸다.'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인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5 ②는 동사의 어간 '짓-'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한 '짓는다'가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6 ①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다.

7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8 ㄷ과 ㄹ은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을 표현한다. ㄱ과 ㄴ은 '-아/-어 있다'를 통해 완료상을 표현한다.

9 ㉠과 ㉡에 모두 '안졌다(안-+-기-+-었-+-다)'가 서술어로 사용되었지만, 이 서술어에 쓰인 '-기-'의 기능은 서로 다르다. ㉠에 사용된 '-기-'는 피동 접미사이고, ㉡에 사용된 '-기-'는 사동 접미사이다.

10 ⑤의 '났혔다'는 '났-+-히-+-었-+-다'로 피동 접미사 '-히-'가 사용되었다.

11 '-우-'는 사동 접미사이다.

12 (1) 능동문의 주어 '경찰이'는 피동문의 부사어 '경찰에게'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 '도망치던 도둑을'은 피동문의 주어 '도망치던 도둑이'가 된다. 또 능동사인 '잡다'는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피동사 '잡히다'가 된다. (2) 능동문의 주어 '준수가'는 피동문의 부사어 '준수에게'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 '해지름'은 피동문의 주어 '해지가'가 된다. 또 능동사인 '밀다'는 어근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피동사 '밀리다'가 된다.

13 ③은 '개어졌다'에서 '-어지다'가 사용되었으므로 통사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①, ④, ⑤는 피동사로 실현된 피동문인 파생적 피동문이고, ②는 능동문이다.

14 ㉠은 피동문으로 꽃병을 깬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아들'이 꽃병을 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15 ⑤는 '-게 하다'로 실현된 통사적 사동문이다.

16 (1) 주동문의 주어 '지수가'는 사동문의 부사어 '지수에게'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 '공을'은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문맥상 공을 차게 하는 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주동사 '차다'의 어근에 '-게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 표현을 실현한다.

(2) 주동문의 주어 '아기가'는 사동문의 부사어 '아기에게'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 '우유를'은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주동사 '먹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또는 '-게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 표현을 실현한다.

17 ㉠~㉣은 각각 '정우가 밥을 안 먹는다.', '정우가 밥을 못 먹는다.', '꽃이 안 예쁘다.'와 같이 짧은 부정문으로 고칠 수 있다.

18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강세를 주거나, 보조사를 사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한다.

19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104~107쪽

- 01 ① 02 ③ 03 ③ 04 (1) '고객님, 문의 사항이 더 있으신가요?', 이유: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계시다'가 아닌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2) '할아버지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유: 객체인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해야 한다. 05 ③ 06 ⑤ 07 ⑤ 08 (1) 종이가 동생에 의해 구겨졌다. (2) 난롯불이 얼음을 녹인다. 09 ④ 10 서희는 물을 삼키지 않았다. 11 ⑤

01 ㉠은 하늘이 깨끗하다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감탄문이고, ㉡은 청자에게 자신과 함께 문구점에 가기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은 청자에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의문문이다.

02 '주스에 얼음을 넣어 드릴까요?'는 의문문의 문장 형식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①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잘못을 탓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칭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에

게 위험한 장난을 멈출 것을 명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⑤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비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03 ‘잘 부탁드립니다.’의 경우 문장의 주체인 ‘여자’가 문장의 객체인 ‘집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므로, ‘부탁할게요’보다 높임말인 ‘부탁드릴게요’를 사용하여 ‘집주인’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04 (1)은 ‘고객님, 문의 사항이 더 있으신가요?’라고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주체인 ‘고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제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다’가 아닌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2)는 ‘할아버지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라고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객체인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여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1)의 ‘계신가요’를 ‘있으신가요’로 바르게 고쳤다.	☐
(1)이 간접 높임의 문장임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
(2)의 ‘묻고’를 ‘여쭙고’로 바르게 고쳤다.	
(2)가 객체 높임의 문장이므로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함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

05 ‘깨끗한 물’은 형용사의 어간 ‘깨끗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한 경우이다.

06 어간 ‘행복하-’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용언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다.

07 ‘알리다’는 주동사 ‘알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08 (1)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주어 ‘동생이’가 피동문의 부사어 ‘동생에 의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 ‘종이’는 피동문의 주어 ‘종이가’가 되며, 능동사에 ‘-어지다’가 붙어 ‘종이가 동생에 의해 구겨졌다.’가 된다.
(2)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주동문의 주어 ‘얼음’이 사동문의 목적어 ‘얼음을’이 되고, 주동문의 부사어 ‘난롯불에 의해’는 사동문의 주어 ‘난롯불이’가 되며, 주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난롯불이 얼음을 녹인다.’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1)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르게 바꿔 썼다.	☐
(2)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르게 바꿔 썼다.	☐

09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는 손님이 모두 오지 않았다는 전체 부정의 의미와 손님이 일부만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 문장에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로 고치면, 손님의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의미만 전달하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점심을 안 먹었다.’는 의지 부정을 의미한다.

② ‘그는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는 형용사 ‘좋다’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상태 부정을 의미한다.

③ ‘그는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먹었다.’는 ‘그가 밥을 전혀 먹지 않았음’만을 의미하므로 중의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말을 안 믿었다.’에서 ‘믿다’는 동사이므로 이 문장은 의지 부정을 의미한다.

10 의지를 부정하는 긴 부정문은 부정 용언 ‘아니하다’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에서 ‘못 삼켰다’를 ‘삼키지 않았다’로 고쳐야 한다.

11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하세요.”는 어제 선생님께서 학생인 청자에게 한 말이다. 직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을 간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으로 바꿔야 하므로 시제와 높임 표현, 조사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꾸어 ‘어제 선생님께서 오늘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로 표현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1

112~115쪽

01 ② **02** ③ **03** 답화는 대화 상황(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04** ③ **05** ④ **06** ③ **07** ③
08 ① **09** ③ **10** ④ **11** ② **12** ② **13** ①

01 담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자, 청자, 맥락, 발화가 있어야 한다.

02 ‘그러나’는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이므로 오징어를 손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두 발화를 연결하는 접속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또한 뒤 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므로 ㉠에 쓰이기 적절하지 않다. ㉠에서는 앞뒤 내용을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인 ‘그리고’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3 <보기>는 동일한 담화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는 담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담화는 대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썼다.	☐
담화는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썼다.	☐

- 04 ㉠은 ‘-고’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지님을 나타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의 짜임은 ‘나’의 소원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뿐임을 강조하여 소원의 간절함이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전해지는 효과를 지닌다.

|오답풀이| ①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② ㉠의 앞의 두 절은 훈문장이며, 마지막 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겹문장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 또한 자신과 같은 소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마지막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것은 맞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의도가 소원을 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소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5 ㉠은 ‘-면’을 사용하여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이 됨을, ㉡은 ‘-아서’를 사용하여 앞 절이 뒤 절의 이유가 됨을, ㉢은 ‘-는데’를 사용하여 앞 절이 뒤 절의 배경이 됨을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은 ‘-고’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은 ‘-거나’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선택의 의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06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빈다.’는 ‘그녀가 행복하기’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행복하다’가 형용사이므로 선행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안은문장인 ‘나는 빈다.’는 동사 ‘빌다’의 어간 ‘빌-’에 선행어미 ‘-니’를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어간 받침 ‘ㄹ’은 ‘-니’를 만나 탈락한 것이다.

참고 자료 ++ ‘ㄹ 탈락’

어간 말에 위치한 ‘ㄹ’이 ‘ㄴ, ㄷ’ 따위와 같은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음운 현상. 기저형에 존재하는 ‘ㄹ’이 음성으로 실현되기 전에 탈락되는 것이다.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때나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되는 법칙이다. ‘버들+나무’가 ‘버드나무’로 바뀌거나 ‘알+느냐’가 ‘아느냐’로 바뀌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07 ㉣의 서술어는 ‘뛰어남요’이므로 서술어가 생략되었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은 명사형 종결 표현인 ‘뛰어남’에 ‘요’를 붙여 상대방에 대해 어떤 높임의 단계를 쓸 것인지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08 ㉠의 ‘-겠-’은 공연에 늦을 수도 있음을 추측하는 의미를, ㉡의 ‘-겠-’은 공연장에 관객 천 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의 ‘-겠-’은 미래에 유명한 가수가 되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09 ‘나는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고 있다.’는 ‘-고 있다’를 통해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진행상에 해당한다.

- 10 ‘끌리다’는 ‘끌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사이며, ‘줄이다’는 ‘줄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오답풀이| ① ‘앉히다’와 ‘깨우다’ 모두 사동사이다.

② ‘물히다’는 피동사, ‘여기다’는 주동사이다.

③ ‘늦추다’와 ‘웃기다’ 모두 사동사이다.

⑤ ‘높이다’와 ‘지우다’ 모두 사동사이다.

- 11 ㉡의 ‘손주에게 한복을 입도록 하겠다.’는 문장 자체는 사동의 의미를 지니나, ‘-도록’은 통사적 사동문 실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는 ‘손주에게 한복을 입게 하겠다.’와 같이 ‘-게 하다’를 사용한 통사적 사동문이 들어가야 한다.

- 12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중 부정 표현(‘않는’, ‘않는다’)을 사용하여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긍정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안’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능력 부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③ ‘않는’, ‘않는다’는 모두 긴 부정문이다.

④ 부정의 범위를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중의성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⑤ ‘사랑하다’는 동사이므로 능력이나 의지 부정이 가능하다.

- 13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서술할 때에는 인용 조사뿐 아니라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 ‘내일’은 ‘오늘’로, ‘드세요’의 높임 표현과 종결 표현은 ‘먹으라’로 바뀌어야 하며, 조사 ‘라고’는 ‘고’로 바뀌어야 한다.

- 01 ⑤ 02 '여학생'과 청자가 맺고 있는 관계, 즉 상황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학생의 거절 표현 또한 달라진 것이다. 03 ④
 ④ 04 ② 05 ㉠: '목이 길다', 서술절 ㉡: '두 볼에 흐르는', 관형사절 ㉢: '그녀가 정당했음', 명사절 06 ④
 07 ① 08 ③ 09 ③ 10 ③ 11 '꽃병이 나에 의해 식탁 위에 놓였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었다. 12 ⑤ 13 ③
 14 ⑤ 15 ⑤

01 '한국인'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외국인'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 엄마'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02 <보기>는 상황 맥락이 언어 표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거절하는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 즉, 거절해야 하는 대상이 선생님일 경우에는 친구일 경우에 비해 더 공식적이고 정중하게 거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상황 맥락이 언어 표현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썼다.	☐
대화 1과 대화 2에서 화자와 청자가 맺고 있는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썼다.	☐

03 '그럼 나는 차 한잔 마시고 올게.'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한 평서문이다.

04 '어제 동물원에서 본 코끼리는 코가 길었다.'라는 문장은 '어제 동물원에서 본'이라는 관형사절과 '코가 길었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① '친구의 병이 낫기'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③ '눈이 부시도록'이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④ '집안이 시원해지게'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⑤ '세상에 존재하는'이라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05 ㉠에는 '목이 길다'라는 서술절이, ㉡에는 '두 볼에 흐르는'이라는 관형사절이, ㉢에는 '그녀가 정당했음'이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절을 찾고 그 종류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
㉡에서 절을 찾고 그 종류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
㉢에서 절을 찾고 그 종류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

06 여러 개의 관형사절과 '아무 불평 없이'라는 부사절은 사용되었지만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07 ㉠은 '-르까요?'라는 의문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요체가 사용된 것이며, ㉡은 '-느냐?'라는 의문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라체가 사용된 것이다.

08 <보기 1>에서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인 반면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급 회의는 의례이므로 서로 상대를 높이는 격식체(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09 ③은 특수 어휘 '드리다'와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손님'을 높이고 있다.
 ②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④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인 '머리'를 높임으로써 주체인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⑤ 특수 어휘 '편찮다'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0 '나는 어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에서 사용한 '-었-'은 '과거'를 의미하므로 이 문장은 <보기>의 「1」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11 '나는 꽃병을 식탁 위에 놓았다.'라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꽃병이 나에 의해 식탁 위에 놓였다(놓이었다).'가 된다. 이처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 문장 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적절히 바꾸어 썼다.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문장 구조의 변화를 알맞게 설명하였다.	☐

12 ㉠은 피동 표현으로 피동작주인 '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기사 제목이다. 따라서 기사 내용도 대학생이 구조된 상황에 초점을 두어 구성될 것이다. 주어진 기사 제목만으로 물놀이 사고의 책임 소재에 초점을 둔 내용의 기사가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어렵다.

13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㉔).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㉕). 피동사로 실현되는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문, ‘-어지다’, ‘-게 되다’로 실현되는 피동문을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한다(㉖).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㉗),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한다. 사동사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㉘), ‘-게 하다’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14 ‘그녀는 나에게만 웃어 주지 않았다.’는 부정 용언 ‘아니하다’를 사용하였으므로 긴 부정문이며,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조사 ‘만’을 사용하여 부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의성을 지니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동생이 책은 안 읽었다.’는 짧은 부정문이다.
 ② ‘그는 현명하지 아니하다’는 긴 부정문이지만, ‘현명하다’가 형용사이므로 의지 부정이 아닌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③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긴 부정문이며 의지 부정이지만, 부정의 대상이 ‘나, 그, 만나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지닌다.
 ④ ‘정우가 밥을 전혀 먹지 못한다.’는 긴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15 직접 인용 표현인 ㉑과 간접 인용 표현인 ㉒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㉑에서 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인칭 표현은 ‘나에게’로, ‘줘’라는 종결 표현은 ‘달라’로, 조사 ‘라고’는 ‘고’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그, 저’와 같은 지시 표현이나 시간 표현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고득점 평가 문제

120~121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① 05 ③ 06 ②

01 ㉒은 화자인 ‘엄마’가 청자인 ‘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엄마’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나, ㉑은 화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02 관형절 ‘그가 용기 내어 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 ‘고백’은 관형절의 원래 문장인 ‘그가 용기 내어 고백을 하다.’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계 관형절’에 해당한다.

03 ㉓는 자신과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며, ㉔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멋있다는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오답풀이 ㉕는 독서 모듬 활동을 실시할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㉖는 아들에게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날 것을 명령하는 의문문이다.

04 ‘나는 어머니께 할아버지의 연세를 여쭙어 보았다.’에서 ‘여쭙다’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며,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이다.

- |오답풀이** ㉗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환자분’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말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 ‘-요’가 사용되었다.
 ㉘ 객체를 높이는 조사인 ‘께’가 사용되었다.
 ㉙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부모님’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댁’이 사용되었다.
 ㉚ 주체를 높이는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05 ‘그녀는 버스를 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의 경우 안은문장의 ‘양보했다’는 발화시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절대 시제로 과거가 되며, 안긴문장인 ‘버스를 탄’의 경우 안은문장의 사건시인 ‘그녀’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상대 시제로 현재가 된다.

|오답풀이 ① ‘동생이 엄마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다.’의 경우 안은문장의 ‘찾았다’는 발화시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절대 시제로 과거가 되며, 안긴문장인 ‘엄마가 잃어버린’의 경우 안은문장의 사건시인 ‘동생이 반지를 찾았’던 때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상대 시제로 과거가 된다.

② ‘그녀는 분위기 있는 발라드 곡을 좋아한다.’의 경우 안은문장의 ‘좋아한다’는 발화시와 일치하는 사건이므로 절대 시제로 현재가 되며, 안긴문장인 ‘분위기 있는’의 경우 안은문장의 사건시인 ‘그녀’가 ‘발라드 곡을 좋아하’는 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상대 시제로 현재가 된다.

④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의 경우 안은문장의 ‘만났다’는 발화시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절대 시제로 과거가 되며, 안긴문장인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의 경우 안은문장의 사건시인 ‘고향 친구들을 만났’던 때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상대 시제로 과거가 된다.

⑤ ‘언니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생을 부른다.’의 경우 안은문장의 ‘부른다’는 발화시와 일치하는 사건이므로 절대 시제로 현재가 되며, 안긴문장인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의 경우 안은문장의 사건시인 ‘언니가 동생을 부르’는 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상대 시제로 현재가 된다.

06 ‘겉옷을 벗고 있으니 시원해졌어.’에서 ‘-고 있-’은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단어와 음운의 탐구 및 활용

(1) 단어의 분류와 특성

학인 문제

127~134쪽

- 1 형태, 기능, 의미 2 ④ 3 ① 4 대명사 5 ①
6 ② 7 (1) × (2) × 8 (1) 빠르다, 돕다 (2) 하다, 푸르다
(3) 하얗다 9 ⑤ 10 ④ 11 ③ 12 ② 13 ③

- 1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이다. 우선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뉜다. 그리고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또한, 단어의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뉜다.
- 2 '차다'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는 뜻의 형용사로,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 3 '구두, 책'은 명사, '그것'은 대명사, '둘째, 하나'는 수사이므로 제시된 단어는 모두 체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4 체언에 해당하고,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대명사이다.
- 5 제시된 문장에서 대명사는 '그'('그는'의 '그')이고, 수사는 '셋'이다. 따라서 대명사 1개, 수사 1개가 쓰였다. '그 위'에서의 '그'는 '위'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6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다. 조사는 자립성은 없지만 단어로 취급한다.
▶오답 풀이 ① 조사는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뉜다.
③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말들이다. 주로 체언과 결합하지만 관형사와 감탄사 외의 모든 품사에 두루 붙는다.
④ '와'는 접속 조사, '가'는 격 조사이다.
⑤ 조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는 활용하지 않는다.
- 7 (1) 용언은 다른 품사들과 달리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2) '착하다, 부지런하다, 솔직하다'는 형용사이고, '달리다'는 동사이다.
- 8 '빠르다, 돕다'는 어간이 불규칙하다. '빠르다'는 '빨라, 빠르니'와 같이 활용한다. '돕다'는 '도와, 도우니, 돕는'

과 같이 활용한다. '하다, 푸르다'는 어미가 불규칙하다. '하다'는 '하여, 하니'와 같이 활용한다. '푸르다'는 '푸르러, 푸르니'와 같이 활용한다. '하얗다'는 어간과 어미 모두 불규칙하다. '하얗다'는 '하얗, 하야니, 하얗소'와 같이 활용한다.

- 9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 -ㄴ-'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 10 ④의 '무척'은 용언 '기뻐하셨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 부사이다. ①의 '다섯'은 수 관형사, ②의 '새'는 성상 관형사, ③의 '저'는 지시 관형사, ⑤의 '첫째'는 수 관형사이다.
- 11 '떠'의 품사는 동사이므로 나머지 단어의 품사와 다르다. '천천히, 매우, 빨리, 일찍'의 품사는 부사이다.
- 12 감탄사는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①의 '예', ③의 '예구머니', ④의 '자', ⑤의 '야'가 감탄사에 해당한다. ②의 '너'는 대명사이다.
- 13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고,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수식언에는 관형사, 형용사가 있고,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142~145쪽

- 01 ③ 02 ⑤ 03 ① 04 ㉠은 조사이고, ㉡은 명사(의존 명사)이다. 조사인 ㉠은 체언 '친구'에 붙어서 '친구'와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낸다. 명사인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관형어 '노력한'의 수식을 받고 있다. 05 ② 06 ②
07 ③ 08 ④ 09 '보다'는 동사이고, '예쁘다'는 형용사이다. '보다'는 '본다'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과 결합할 수 있고, '보려'와 같이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려'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보자'와 같이 청유형 어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는 동사이다. '예쁘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고,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와 청유형 어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10 ①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③

- 01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조사와 관계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다'는 '이고, 이니' 등 동사와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가변어이다.
- 02 '홀로, 너무, 한층'은 모두 부사이므로 '너무'와 '한층'은 같은 품사이다.

03 명사는 ‘비, 오늘, 날씨, 하늘’로 네 개이다.

|오답풀이 ② 동사는 ‘그쳤고’로 한 개이다.

③ 부사는 ‘어제, 참’으로 두 개이다. ‘어제’는 동사 ‘그쳤고’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④ 조사는 ‘는, 은, 가, 이’로 네 개이다.

⑤ 형용사는 ‘맑아서, 파랗다’로 두 개이다.

04 조사는 체언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하며,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의 품사를 썼다.	☐
㉠의 문법적 원리를 썼다.	☐
㉡의 문법적 원리를 썼다.	☐

05 ㉠은 부정칭으로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을 때 사용한다. 가리키는 대상을 모를 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는 미지칭 ‘누구’이다.

|오답풀이 ① ㉠과 ㉡는 ‘핑 리안’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③ ㉢는 재귀칭으로 앞의 대명사 ‘그’를 다시 가리키고 있다.

④ ㉠과 ㉢는 3인칭 대명사, ㉡는 부정칭, ㉣는 재귀칭이므로 ㉠~㉣는 모두 인칭 대명사이며, ㉤는 잘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⑤ ㉠~㉤는 모두 조사와 결합하고 있으며, 대명사이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06 ㉠의 ‘넷’은 ‘셋에 하나를 더한 수’를 의미하는 수사로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의 ‘만’은 ‘천의 열 배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수사로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의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 ‘한’은 체언인 ‘남자’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일곱’은 체언인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07 ㉠의 ‘만’은 ‘한정’, ‘도’는 ‘더함’의 뜻을 앞말에 더해 주는 보조사로 앞말의 품사는 바꾸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의 ‘이’와 ‘가’는 앞말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격 조사이다.

② ㉡의 ‘와’와 ‘랑’은 두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④ ㉣는 조사가 용언(예쁘게)과 부사(천천히) 뒤에 쓰인 예이다.

⑤ ㉤의 밑줄 친 부분은 ‘에서+는’, ‘만+으로+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예로 조사가 둘 이상 겹쳐 쓰이고 있다.

08 ‘나아서’는 어간 ‘나-’와 연결 어미 ‘-아서’가 결합한 것이므로 ㉠에는 ‘연결 어미’가 제시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나아서(났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② ‘싶어(싶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③ ‘아픈데’는 어간 ‘아프-’와 연결 어미 ‘-는데’가 결합한 것이다.

⑤ ‘싶어’는 어간 ‘싶-’과 종결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이다. 전성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09 <보기>의 예문에서 ‘본다, 보자, 보려’와 같이 ‘보다’는 동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예쁘다’는 ‘예쁘다, 예쁘자, 예쁘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의 사용 차이를 썼다.	☐
목적의 어미 ‘려’의 사용 차이를 썼다.	☐
청유형 어미 ‘-자’의 사용 차이를 썼다.	☐

10 ㉠ ‘잡기’는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으며 서술성이 있으므로 동사이다.

㉡ ‘잠’은 부사어 ‘일찍’의 수식을 받고 ‘그가 일찍 잔다’는 의미로 서술성이 있으므로 동사이다.

|오답풀이 ㉢ ‘달리기’는 조사 ‘가’가 붙고 관형어 ‘시작한’의 수식을 받으며 서술성이 없으므로 명사이다.

㉣ ‘춤’은 관형어 ‘추는’의 수식을 받고 조사 ‘은’과 결합하므로 명사이다.

11 ‘치르다’는 ‘치르-+-어 → 치러’와 같이 활용하는데, 여기서 ‘ㄹ’이 탈락한다. 이것은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ㄹ’이 탈락하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반면 ‘흐르다’는 활용할 때 ‘흐르-+-어 → 흘러’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ㄹ’이 ‘ㄹㄹ’ 형태로 변하는 ‘ㄹ’ 불규칙 활용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낮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ㅅ’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② ‘엿듣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③ ‘하다’는 어간 ‘하-’ 뒤에 어미 ‘-아’ 대신에 ‘-여’가 붙는 ‘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⑤ ‘하얗다’는 ‘ㅎ’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ㅎ’으로 끝나는 어간 ‘하얗-’에 어미 ‘-아’가 올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해 ‘하얘’가 된다.

12 ‘집어 먹었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관계이다. 즉 ‘먹었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으로 쓰였다.

13 ㉠의 ‘참’은 ‘자주’를 수식하고, ‘자주’는 ‘온다’를 수식하고 있다. 이처럼 문장에서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를 성분 부사라고 한다. ㉡의 ‘그런데, 설마’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 부사이다. 이 중 ‘그런데’처럼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한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 ‘이, 두, 새’와 부사 ‘참, 자주, 그런데, 설마’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②, ⑤ 관형사인 ‘이, 두, 새’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준다. 부사인 ‘참’은 ‘자주’를, ‘자주’는 ‘온다’를 수식한다. 그리고 ‘그런데, 설마’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처럼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기 때문에 기능상 수식언이다.

③ ①의 ‘이’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지시 관형사, ‘두’는 수량,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 ‘새’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성상 관형사이다.

14 부사인 ‘바로’가 명사인 ‘오늘’, 곧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15 ‘여보세요’는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감탄사이다.

[오답풀이] ① ‘저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지시 대명사이다.

② ‘옛’은 ‘지나간 때의’ 뜻을 지닌 관형사이다.

③ ‘모름지기’는 ‘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의 뜻을 지닌 부사이다.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 접속 부사이다.

16 ‘나는 당신에게’의 ‘당신’은 2인칭 대명사이고 ‘당신 물건’의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할아버지’)을 높여 이르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이다. 둘 다 대명사이므로 품사의 통용을 설명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의 ‘밝다’는 형용사, ‘날이 밝는 대로 떠나자.’의 ‘밝는’은 동사이다.

②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이’는 대명사, ‘이 사과는 참 맛있게 생겼다.’의 ‘이’는 관형사이다.

③ ‘여기는 바람이 아니 분다.’의 ‘아니’는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의 ‘아니’는 감탄사이다.

④ ‘서울에서는 비교적 지하철이 빠르다.’의 ‘비교적’은 ‘빠르다’를 수식하는 부사이고, ‘비교적 관점’의 ‘비교적’은 ‘관점’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17 <보기 2>의 문장은 ‘나’, ‘는’, ‘약속’, ‘대로’, ‘이곳’, ‘에’, ‘온’, ‘지’, ‘일’, ‘년’, ‘만’, ‘에’, ‘떠나기’, ‘로’, ‘결심했다’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기 1>의 제2항에 따르면 이 단어들은 모두 띄어 써야 하나, 제41항에 따라 조사 ‘는’, ‘대로’, ‘에’, ‘로’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또한 제42항에 따라 의존 명사 ‘지’, ‘년’, ‘만’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2) 단어의 짜임과 의미

확인 문제

147~153쪽

- 1 ㉠: 형태소, ㉡: 자립, ㉢: 의존, ㉣: 실질 2 ㉡ 3 주먹, 집-, 뛰-, 놀- 4 ㉠ 5 ㉣ 6 베개, 놀이, 장사꾼, 햇과일, 날음식 7 ㉡ 8 ㉣ 9 ㉤ 10 합성, 파생 11 ㉤ 12 유의 관계 13 ㉣ 14 일반적, 포괄적 15 ㉣

1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의 유형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2 이 문장에서 단어는 ‘나무, 가, 매우, 푸르다’로 4개이다.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나무, 가, 매우, 푸르-, -다’로 5개이다.

3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주먹, 집-, 뛰-, 놀-’이 어근에 해당한다. ‘맨주먹’은 ‘맨-+주먹’, ‘집계’는 ‘집(다)-+-계’, ‘뛰놀다’는 ‘뛰(다)-+놀(다)-+-다’로 분석할 수 있다.

4 ‘한-’은 ‘큰’ 또는 ‘정확한’,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한시름’은 ‘큰 시름’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서 ‘한-’은 ‘하나’가 아니라 ‘큰’이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5 형태소를 분석했을 때, 가장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은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다.

[오답풀이] ①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②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③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⑤ 접사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이때 어근 앞에 붙는 접사가 접두사이고, 어근 뒤에 붙는 접사는 접미사이다.

6 ‘베개, 놀이, 장사꾼, 햇과일, 날음식’은 모두 파생어이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베개’는 접미사 ‘-개’, ‘놀이’는 접미사 ‘-이’, ‘장사꾼’은 접미사 ‘-꾼’, ‘햇과일’은 접두사 ‘햇-’, ‘날음식’은 접두사 ‘날-’이 어근과 결합하였다.

7 ‘치솟다’는 접사 ‘치-’와 어근 ‘솟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합성어이다. ①의 ‘군밤’은 ‘굽-, -ㄴ-, ‘밤’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 8 ‘뛰놀다, 여닫다’와 같이 연결 어미 없이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두 단어는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형태로,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덮밥’만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용언의 어간+명사’의 형태이다.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② ‘검붉다’만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이다.

③ ‘꼭쇠’만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용언의 어간+명사’의 형태이다.

⑤ ‘높푸르다’만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이다.

- 9 ‘굳세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지만, ‘돌아보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굳세다’는 ‘굳다’와 ‘세다’가 결합한 것으로 연결 어미 없이 두 용언이 결합하였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에 ‘돌아보다’는 ‘돌다’와 ‘보다’가 결합한 것으로 연결 어미 ‘-아’가 사용되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10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생각과 사물이 생겨나면 이를 표현할 새말이 필요하다. 새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새말은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한다.

- 11 ‘대인배’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은 아니지만 ‘마음 씩씩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들이나 그 무리’를 뜻하는 ‘소인배’를 바탕으로 만든 새말이다. ‘대인배’는 어근 ‘대인(大人)’과 ‘무리를 이룬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배(輩)’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① ‘강추’는 ‘강(력) 추(천)’의 줄임 말이다.

② ‘훈밥’은 ‘훈(자) 밥(을 먹음)’의 줄임 말이다.

③ ‘깜놀’은 ‘깜(짝) 놀(라다)’의 줄임 말이다.

④ ‘심쿵’은 ‘심(장이) 쿵(하다)’의 줄임 말이다.

- 12 ‘아빠 - 아버지 - 부친 - 춘부장(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가끔 - 이따끔 - 때로 - 간간이 - 더러 - 간혹’은 모두 유의 관계에 해당한다. 유의어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이다.

- 13 ‘배우다 - 익히다’는 유의 관계의 단어들이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의 단어들이다.

- 14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

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하의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 15 ‘동물 - 척추동물 - 포유류’는 상의어와 하의어 간의 관계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척추동물’은 ‘동물’의 하의어이지만 ‘포유류’의 상의어이기도 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160~163쪽

- 01 ①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③
07 ④ 08 ‘마주서다’는 ‘마주+서다’로 ‘부사+용언’이 결합한 것이다. 부사는 용언을 바로 수식할 수 있으므로 ‘마주서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르내리다’는 ‘오르-+내리다’가 결합한 것이다.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로 연결 어미가 생략되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므로 ‘오르내리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9 ②
10 ③ 11 ⑤ 12 ③ 13 ⑤ 14 ① 15 ④
16 ④

- 01 (가)에서 제시된 용언 ‘자꺾다’의 어간 ‘자-’는 의존 형태 소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의존 형태소는 모두 형식 형태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기>에서는 ‘그, 사람, 옆, 어리-, 아이, 있-’이 이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① 단어: 그, 사람, 옆, 예, 는, 어린이, 가, 있었다

② 자립 형태소: 그, 사람, 옆, 아이

③ 의존 형태소: 예, 는, 어리-, -ㄴ, 가, 있-, -었-, -다

⑤ 형식 형태소: 예, 는, -ㄴ, 가, -었-, -다

- 03 ‘큰비’는 ‘크-+-ㄴ-+비’와 같이 세 개의 형태소로 분석된다.

[오답풀이] ① ‘마을’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마을’은 하나의 실질 형태소이며, 자립 형태소이다.

③ ‘이’와 ‘에’는 모두 조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며 형식 형태소이다.

④ ‘휩쓸렸다’의 형태소는 ‘휩쓸-(용언 어간)+-리-(피동 접미사)+-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어말 어미)’로 분석된다. 따라서 ‘휩쓸렸다’는 모두 의존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휩쓸렸다’는 ‘휩쓸다’의 피동사로 어근은 ‘휩쓸-’이다. 어근 ‘휩쓸-’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04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의 ‘은/는’과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의 ‘듣-/들-’,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의 ‘-았-/-었-’은 모두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은/는’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조사인데, 받침의 유무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들-/들-’은 ‘들다’의 어간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들-’로 형태가 바뀐다. ‘-았-/-었-’은 과거 시제의 선언어미인데,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된 어간과는 ‘-았-’, 음성 모음으로 된 어간과는 ‘-었-’이 어울린다. 따라서 제시문의 밑줄 친 말들은 모두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며,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는’, ‘들-/들-’, ‘-았-/-었-’은 모두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들이므로 기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지만, ‘은/는’과 같은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조사인 ‘은/는’을 제외한 ‘들-/들-’, ‘-았-/-었-’은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은/는’, ‘-았-/-었-’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들-/들-’은 동사 어간으로서 실질 형태소이다.

④ ‘은/는’, ‘들-/들-’, ‘-았-/-었-’ 모두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만, ‘들-/들-’은 실질 형태소이다.

⑤ ‘은/는’, ‘들-/들-’, ‘-았-/-었-’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지만, ‘들-/들-’은 실질 형태소이다.

05 ‘향기롭다’는 어근 ‘향기’와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롭다’는 일부 어근에 붙어 ‘그리함’ 또는 ‘그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06 ‘달리기’는 ‘달리-+-기’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파생어로 볼 수 있다. ‘글+짓기’나 ‘글(을) 짓-+-기’의 ‘글짓기’와 달리 ‘달-+-리기’나 ‘달(을/이) 리-+-기’의 형태로 결합하지 않는다. ‘달리기’는 용언의 어간과 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책+꽃이’나 ‘책(을) 꽃-+-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귀+걸이’나 ‘귀(에) 걸-+-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쑤시개’나 ‘이(를) 쑤시-+-개’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바람+막이’나 ‘바람(을) 막-+-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좁혔다’는 형용사 ‘좁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품사가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었다.

【오답풀이】 ① ‘새해’는 파생어가 아니라 관형사 ‘새’와 명사 ‘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새’는 관형사로 접두사가 아니다.

② ‘늦잠’은 용언의 어간 ‘늦-’과 명사 ‘잠’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늦-’은 용언의 어간으로 접두사가 아니다.

③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일찍이’는 부사이므로 단어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⑤ ‘옛보았다’는 ‘몰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옛-’과 동사 ‘보았다’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옛-’은 접미사가 아니라 접두사이다. ‘옛보았다’는 동사이므로 단어의 품사도 바뀌지 않았다.

08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된다. ‘마주서다’는 ‘마주+서다’로 ‘부사+용언’이 결합한 것이다. 부사는 용언을 바로 수식할 수 있으므로 ‘마주서다’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르내리다’는 ‘오르-+내리다’가 결합한 것이다.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로 연결 어미가 생략되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하였다.	☐
‘부사+용언’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임을 제시하였다.	☐
‘용언의 어간+용언’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 비통사적 합성어임을 제시하였다.	☐

09 ‘큰집’은 ‘크-+-ㄴ+집’으로 ‘-ㄴ’은 관형사형 어미로 용언인 ‘크다’가 명사 ‘집’을 수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단어의 구조이다.

10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단어이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보기>에서 파생어는 ‘잠긴, 덮인, 날리는, 한여름, 대낮, 한밤’이고, 합성어는 ‘부슬비, 분수, 고독, 함박눈, 동짓달’이다.

11 ‘누리집’은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누리꾼’은 이미 있는 단어를 파생하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든 것이다. ‘누리집’은 ‘누리(어근)’와 ‘집(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누리꾼’은 ‘누리(어근)’와 ‘-꾼(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2 ‘몸치’는 어근 ‘몸’과 접미사 ‘-치’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다. 다른 말들은 모두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오답풀이】 ① ‘강추’는 ‘강력 추천’의 줄임 말이다.

② ‘심쿵’은 ‘심(장이) 쿵(하다)’의 줄임 말이다.

④ ‘깜놀’은 ‘깜(짝) 놀(라다)’의 줄임 말이다.

⑤ ‘훈밥’은 ‘훈(자) 밥(을 먹음)’의 줄임 말이다.

13 ‘아점(아침과 점심 사이의 식사)’과 ‘짬짜면(짬뽕과 짜장면을 반씩 담아 먹는 음식)’은 단어의 첫 말을 따서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로, 어근의 형태가 단어 형성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단어의 일부가 줄어든 상태로 결합된다. ‘밤비, 땀내, 등불, 눈물’은 모두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밤+비, 땀+내, 등+불, 눈+물’로 분석할 수 있다.

‘셀카’는 스마트폰 따위로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행위를 뜻하는 새말로, ‘셀(프)+카(메라)’의 줄임 말이다. ‘여사친’은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로 지내는 여자를 가리키는 새말이다. ‘여(자)+사(람)+친(구)’의 줄임 말이다.

- 14 ①의 ‘먹다’는 ㉠ ‘반다’의 의미가 아니라,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 15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중립 영역이 없는 반의어를 ‘상보 반의어’라고 한다. 스승과 제자는 인간관계의 방향, 곧 위, 아래를 나타내는 반의어이다. 어떤 학생에 대해 모든 선생님이 스승이 될 수 없고, 어떤 스승님에 대해 모든 학생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배타적인 대립 관계로 볼 수 없다.
- 16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한다. 이때 포함하는 단어가 상의어, 포함되는 단어가 하의어인데 ‘기쁨’은 ㉡(‘감정’)의 하의어가 된다.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하의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감정’이 ‘기쁨’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3)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확인 문제

165~176쪽

- 1 물리적, 추상적 2 ③ 3 ② 4 ③ 5 ⑤ 6 ④
 7 교체, 탈락, 첨가, 축약 8 ① 9 ① 10 ②
 11 ④ 12 ① 13 ⑤ 14 날으는 → 나는, 용언의 어간 말 자음 ‘ㄹ’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해야 하는데 ‘ㄹ’이 탈락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표기이다. 15 ③
 16 ③ 17 ㄱ, ㄷ, ㅂ, ㅈ, ㅊ 18 ①

- 1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이다. 음운은 말소리의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다.
- 2 ‘ㅂ, ㅍ, ㅃ, ㅁ’은 두 입술에서 나는 입술소리이다.

오답풀이 ① ‘ㅎ’은 목청(성대)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이다.

② ‘ㅈ, ㅊ, ㅍ’은 혀바닥과 천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천입천장소리이다.

④ ‘ㄱ, ㅋ, ㆁ, ㅇ’은 혀의 뒷부분과 어린입천장에서 나는 어린입천장소리이다.

⑤ ‘ㄷ, ㅌ, ㅌ, ㅅ, ㅆ, ㄴ, ㄹ’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잇몸소리이다.

- 3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 4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뉜다. 발음할 때 최고점이 입안에서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혀의 최고점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 또 발음할 때 입술을 자연스럽게 펴서 내느냐, 둥그랗게 오므려서 내느냐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
- 5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모음을 분류하고 있다. ‘ㅣ, ㅐ, ㅑ, ㅓ, ㅗ’는 전설 모음이고, ‘ㅡ, ㅜ, ㅛ, ㅝ, ㅚ’는 후설 모음이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안에서 앞쪽에 있으면 전설 모음이고,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다.
- 6 ㉠와 ㉡의 ‘눈’은 소리의 길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소리의 장단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되고, 둘째 음절부터는 항상 짧게 발음된다.
- 7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탈락, 원래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을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한다.
- 8 ‘쌍이다 → [싸이다]’는 ‘ㅎ’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부엌문 → [부엌문]’에서 ‘엌’의 ‘ㄱ’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면서 ‘ㅇ’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부엌문’은 교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9 ‘먹는’은 [명는]으로 발음된다. ‘ㄴ’ 앞에서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었으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신라’는 [실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③ ‘굳이’는 [구지]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④ ‘꽃다발’은 ‘꼰다발 → [꼰따발]’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⑤ ‘낫, 낫, 낫’은 모두 [낫]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10 ‘닫히다’는 [다치다]로 발음되어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구개음화는 음절 말의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센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11 ‘밥상’은 [밥쌍]으로 발음된다. 이는 종성 ‘ㅂ’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이다. 된소리되기는 특정한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12 ‘넋, 값, 넓다, 밭다’는 [넋], [갑], [넌파], [밭:파]로 발음된다. 이는 음절 말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오답풀이 ② 자음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 ③ ‘ㄹ’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④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⑤ ‘ㅎ’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13 ‘앞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압마당’으로 바뀌고, 다시 비음화 현상에 의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는데, ‘앞마당 → [암마당]’의 과정에서 파열음 ‘ㅂ’이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앞마당’은 비음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모음 ‘ㅡ’ 탈락이 일어난다.

- ② ‘ㅎ’ 탈락이 일어난다.
 ③, ④ ‘ㄹ’ 탈락이 일어난다.

14 ‘날으는’은 ‘ㄹ’ 탈락이 일어나야 할 용언의 활용형에서 ‘ㄹ’을 탈락시키지 않아 발생한 잘못된 표기이다. ‘날다’의 어간 ‘날-’과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날으는’이 아니라 ‘나는’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15 ‘씨’와 ‘셨다’는 각각 모음 ‘ㅡ’와 ‘ㅣ’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모음 탈락이다. 모음 탈락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졌다는 ③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16 ‘물놀이’는 [물로리]로 발음되며,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ㄴ’ 첨가

현상은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j]’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여 발음되는 현상이다.

|오답풀이 ①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된다.

- ②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된다.
 ④ ‘두통약’은 [두통낙]으로 발음된다.
 ⑤ ‘한여름’은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17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18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놓다’가 [노타]로 발음되어 ‘ㅎ’이 ‘ㄷ’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들었다.

소단원 평가 문제

184~189쪽

- 01** ② **02** ③ **03** ⑤ **04** 해꼬지 → 해코지, 자음을 발음할 때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혼동하여 ‘ㅋ’을 ‘ㄱ’으로 발음하고 표기도 ‘ㄱ’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05** ② **06** ① **07** ②
08 ③ **09** ⑤ **10**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11** ② **12** ②
13 ② **14** ④ **15** ① **16** ⑤ **17** ③ **18** ③
19 ⑤ **20** ① **21** ②

01 ‘막다’와 ‘땀다’의 발음은 모두 [막따]이므로 두 단어의 발음은 동일하다. 따라서 외국인이 ‘막다’와 ‘땀다’의 발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단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영어권 화자들은 ‘불’, ‘풀’, ‘뿔’의 차이를 쉽게 구별해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된소리가 별개의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음운 체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된소리를 음운으로 인식하지 않는 영어권 화자의 경우 ‘달’과 ‘딸’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②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말소리에서 공통된 요소만을 뽑아 추상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이를 음운이라고 한다. 따라서 추상적 소리인 음운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소리는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소리로 인식한다.

④ 한 언어에서 구별하여 인식하는 소리들을 다른 언어에서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음운의 목록과 체계는 언어마다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⑤ 음성은 물리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각 사람의 말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물리적 소리인 음성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02** (라)에서 울림소리로 구성된 ‘말랑말랑’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안울림소리로 구성된 ‘썉썉썉썉’은 딱딱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안울림소리인 파찰음, 마찰음이 울림소리인 비음, 유음에 비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다)로 보아 파열음과 파찰음은 발음하는 방법이 다르다.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이고,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이다.

② (가)에서 사람의 말소리 중 공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좁혀서 내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는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구별되는 소리라고 하였다.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 거센소리이고,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 된소리가 된다. 예사소리는 목의 근육을 긴장시키지도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도 않는다.

⑤ 조음 위치는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 위치를 말한다. 입술소리와 잇몸소리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 위치가 다르다. 입술소리(순음)은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이고, 잇몸소리(치조음)는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03** ‘조건 1’에서 ‘헛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센입천장소리’이다.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ㄴ, ㄷ, ㄹ’이다. ‘조건 2’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는 ‘파찰음’이다. ‘조건 3’에서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어 내는 소리’는 ‘된소리’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음은 ‘ㄴ’이다.

- 04** <보기>에서 우리가 자음을 발음할 때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코지’는 ‘ㄱ’을 발음할 때 거센소리 ‘ㄱ’과 된소리 ‘ㄴ’을 혼동하여 ‘해꼬지’로 쓰기 쉬운 단어이다. 그러나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을 뜻하는 명사는 ‘해꼬지’가 아니라 ‘해코지’로 표기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해코지’를 정확하게 밝혀 썼다.	☐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혼동함을 썼다.	☐
‘ㄱ’을 ‘ㄴ’으로 발음하고 표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

- 05** (나)와 (다)를 통해 ‘ㄴ’과 ‘ㅎ’의 조음 방법과 위치를 알 수 있다. ‘ㄴ’은 조음 방법을 고려할 때 파열음이다.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이다.

‘ㅎ’은 조음 위치를 고려할 때 목청소리이다. 목청소리는 목청(성대)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06** ㉠은 ‘ㄱ’, ㉡은 ‘ㄴ’, ㉢은 ‘ㄷ’, ㉣은 ‘ㄹ’에 대한 설명이다. ㉠~㉣의 음운이 모두 포함된 단어는 ‘꽃날’이다.

|오답풀이 ② ㉠, ㉡, ㉢이 포함되지 않았다.

③ ㉠, ㉡이 포함되지 않았다.

④ ㉠, ㉡, ㉢이 포함되지 않았다.

⑤ ㉠, ㉡이 포함되지 않았다.

- 07** <보기>에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였으므로 ‘miss’는 ‘미쓰’가 아니라 ‘미스’라고 표기해야 한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핀, 게임, 선글라스, 매트리스’와 같이 예사소리나 거센소리로 적어야 한다.

- 08**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크게 방해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단모음이든 이중 모음이든 모든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크게 방해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자연스럽게 퍼서 내느냐, 둥그렇게 오므려서 내느냐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 09** ‘결재’와 ‘기도’에 쓰인 단모음은 ‘ㅐ, ㅣ, ㅑ’이다. ‘ㅣ’는 고모음, ‘ㅐ’는 중모음, ‘ㅑ’는 저모음으로 혀의 최고점의 높낮이가 모두 다르다.

|오답풀이 ① ‘ㅐ’와 ‘ㅑ’는 단모음이지만, ‘ㅓ’는 이중 모음이다.

② ‘기도’에는 이중 모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ㅣ’, ‘ㅑ’는 모두 단모음이다.

③ ‘결재’에 쓰인 단모음은 ‘ㅐ’이다. ‘ㅐ’는 혀의 최고점이 입안에 서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④ ‘기도, 구도, 괴도’에 쓰인 모음들을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있다. ‘도, 구, 괴’에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서 내는 원순 모음인 ‘ㅜ, ㅠ, ㅡ’가 사용되었다.

- 10** ‘건아가 그러는데, 어제 새로 개봉한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대.’에서 화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건아’ 곧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미있대’에서 어미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

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가 ~할 때’의 형식을 갖추어 썼다.	☐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밝혀 썼다.	☐

- 11** ‘근데’는 ‘그런데’이 준말이므로 표기상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올바른 표기이다. 나머지 예들은 모음 ‘ㅐ’와 ‘ㅑ’, ‘ㅓ’와 ‘ㅕ’의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표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그새’는 ‘그새’로 표기해야 한다. ‘그새’는 ‘그사이’의 준말이다. 이는 저모음 ‘ㅐ’와 중모음 ‘ㅑ’의 발음을 혼동한 것이다.

③ ‘까페’는 ‘카페’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거센소리 ‘ㄷ’을 된소리 ‘ㄸ’으로 잘못 발음하고 표기한 것이다.

④ ‘껌질채’는 ‘껌질째’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된소리 ‘ㅈ’을 거센소리 ‘ㅊ’으로 잘못 발음하고 표기한 것이다.

⑤ ‘보이든데’는 ‘보이던데’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중모음 ‘ㅓ’를 고모음 ‘ㅗ’로 잘못 발음하고 표기한 것이다.

- 12** 억양은 여러 음절에 걸쳐 실현되는 음의 높낮이로, 문장의 종류 또는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집에 가.”를 끝을 올리는 억양으로 말하면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이 된다.

|오답풀이 ①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의미의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둘째 음절부터는 의미 변별에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③ 소리의 길이와 억양은 분절음이 실현될 때 함께 실현되는 비분절음으로 의미의 변별력을 갖는다. 음운은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와 억양도 음운에 속한다.

④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이 되고, 둘째 음절부터는 항상 짧게 발음되므로 ‘눈(雪)[눈:]’과 ‘눈사람[눈:싸람]’은 길게 발음하고, ‘첫눈[천눈]’은 짧게 발음한다.

⑤ 억양은 여러 음절에 걸쳐 실현되는 음의 높낮이로서 문장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 일반적으로 의문문에서는 끝을 올리고, 평서문에서는 끝을 내리며, 명령문에서는 일정한 높낮이를 유지한다. 또한 억양은 단순히 문장의 종류뿐 아니라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13** 비음화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 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 14**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종성 ‘ㅅ, ㅆ, ㅈ, ㅊ, ㅌ, ㅎ’은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찰흙[찰학]’에서 ‘ㅆ’은 ‘ㄱ’으로 발음되므로 음절 말에서 ‘ㄷ’으로 발음되는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한낱’은 [한낱]으로 발음된다.

② ‘빛깔’은 [빈깔]로 발음된다.

③ ‘히읇’은 [히읇]으로 발음된다.

⑤ ‘웃걸이’는 [온꺼리]로 발음된다.

- 15** ‘미닫이[미다지]’는 모음 ‘ㅣ’ 앞에서 ‘ㄷ’이 ‘ㅈ’으로 바뀌었으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구개음화는 음절 말의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바뀐 ‘ㅈ, ㅊ’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냉지[너치]’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이 되었으므로 구개음화가 아니라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구개음화는 음절 말의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므로,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없으면 실현될 수 없다.

③ ‘갈 길[갈길], 볼 사람[볼싸람], 할 적에[할쩌게]’로 보아 된소리되기는 반드시 한 단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④ ‘갈등[갈똥]’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며, ‘겪었다[겪똥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⑤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구개음화는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고,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 16** ‘읽는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일는다’가 되고, 다시 유음화에 의해 [일르다]로 발음된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말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유음화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 17** ‘눈요기’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눈 뇨기]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ㄴ’ 첨가는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j]’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여 발음되는 현상이다.

|오답풀이 ① ‘엷는[언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 나는 현상이다. 이는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② ‘눅히다[누피다]’는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ㄷ, ㅌ, ㅆ, ㅊ’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한다.

④ ‘덫개[덫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덫개’로 바뀌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덫개]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에 해당한다.

⑤ ‘맛없다[마덥따]’는 ‘맛’의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없-’의 받침 ‘ㅃ’중 ‘ㅅ’이 탈락되고 ‘ㅂ’이 남

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ㄴ'의 첫소리 'ㄷ'이 'ㄹ'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교체와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18 '감사합니다'를 '감사합니다'로 잘못 표기한 것은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와 관련이 있다.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 앞에서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로 소리 나는데, ㄷ은 이를 그대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담뇨'는 '담요'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 'ㄴ' 소리가 덧난 것인데, ㄱ은 이를 그대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② '젓는'은 '젓느'으로 표기해야 한다. 종성 'ㅈ'과 'ㅅ'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모두 'ㄷ'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 표기한 것이다.

④ '낫설은'은 '낫선'으로 표기해야 한다. '낫설다'에 '-은'이 연결 되면 'ㄹ'이 탈락되어 '낫선'이 된다. '낫설은'은 'ㄹ'을 탈락시키지 않는 오류이므로 ㄹ은 'ㄹ' 탈락과 관련이 있다.

⑤ '꼬치'는 '꼬이'로 표기해야 한다. 구개음화 현상에 의해 '꼬이'가 [꼬치]로 발음된 것인데, ㅁ은 이를 그대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 19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그러나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으므로 '개구쟁이'는 맞는 표기이다.

|오답풀이 ① '아기'가 표준어이다.

② '꽃내기'가 표준어이다.

③ '웅기장이'가 표준어이다.

④ '아지랑이'가 표준어이다.

- 20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뿔다'는 '푸다'의 어간 '푸-'에서 'ㅍ'가 탈락한 것이다. 나머지는 'ㅡ'가 탈락한 것이다. 용언 어간의 끝 모음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오답풀이 ① '담가'는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서 'ㅡ'가 탈락한 것이다.

③ '썼다'는 '쓰다'의 어간 '쓰-'에서 'ㅡ'가 탈락한 것이다.

④ '꺼'는 '꼬다'의 어간 '꼬-'에서 'ㅡ'가 탈락한 것이다.

⑤ '고파서'는 '고프다'의 어간 '고프-'에서 'ㅡ'가 탈락한 것이다.

- 21 ㉞의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되어 [그리치만]으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맞춤법에 맞게 '그렇지만'으로 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새벽녘'이 바른 표기이다.

③ '해돋이'가 바른 표기이다.

④ '나는'이 바른 표기이다.

⑤ '살퍼볼게'가 바른 표기이다.

(4)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확인 문제

191~195쪽

1 ② 2 ① 3 (1) [닐리리] (2) [유히] (3) [우리의/우리에]
4 ③ 5 (1) × (2) ○ 6 ⑤

- 1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부터'는 조사이므로 재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어서부터'라고 써야 한다.

- 2 '-(으)르꼬'는 의문형 어미로 된소리로 적는다.

|오답풀이 ② '되'는 '돼'로 적어야 한다. '되다'의 어간 '되-'에 '-어, -어라, -었-' 등이 붙은 '되어, 되어라, 되었-'이 줄 때 '돼, 돼라, 됐-'과 같이 '돼-'의 형태가 된다.

③ '연락할게'는 '연락할게'로 적어야 한다. 어미 '-(으)르게'는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④ '넘어'는 '너머'로 적어야 한다.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⑤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따라서 의존 명사인 '수'와 조사 '밖에'는 붙여 써야 하므로 '수밖에'로 적어야 한다.

- 3 '닐리리', '유히'와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발음한다. 따라서 '닐리리'는 [닐리리]로 발음하고, '유히'는 [유히]로 발음한다.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우리의'는 [우리의/우리에]로 발음한다.

- 4 '네가'를 '늑가'라고 한 것은 구어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문학 작품에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은 표현, 방언, 구어체의 느낌을 살린 표현 등을 사용한다.

- 5 가상 공간에서는 공식적인 글에서 쓰지 않는 표현, 줄임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표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문장 부호를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 지나치게 국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6 ‘ㅋㅋㅋ’, ‘버카충’, ‘생선’, ‘대박’ 등은 공식적인 글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누리 소통망(SNS) 등의 가상 공간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답풀이 ① ‘버카충’은 ‘버스 카드 충전’의 줄임 말이고,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 말이다.

- ② ‘사줄께’, ‘추카해’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③ ‘대박!!!’에서 문장 부호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④ ‘사줄께’, ‘뭐사줄꼬야’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02~205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⑤ 11 ‘의의’는 [의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 이유는 ‘의의’의 첫음절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의]로 발음하고, ‘의의’의 둘째 음절 ‘의’는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의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이다. 12 ④ 13 글자 입력을 쉽고 빠르게 하고,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01 ‘느’는 조사이므로 앞말 ‘나’에 붙여 쓴다. ‘먹고 싶은’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쓴다. ‘것’은 의존 명사이고 ‘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정말’은 ‘많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02 문장 안에서 형태가 같더라도 기능이 다르면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될 만하다’와 ‘할 만하다’에서 ‘만하다’는 모두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A]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다. ③의 ‘만하다’는 형태와 기능이 같은 말이고, ‘될 만하다’, ‘할 만하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시오.(보조사)
• 나와 약속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의존 명사)
② •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너뿐이다.(보조사)
• 채소가 싱싱할 뿐 아니라 값도 싸다.(의존 명사)
④ • 저 하늘의 별같이 반짝이는 눈을 가졌다.(부사격 조사)
• 오늘 점심은 한 장소에서 같이 먹읍시다.(부사)
⑤ • 나도 언니만큼 요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보조사)
• 그는 아들에게 희망을 건 만큼 실망도 컸다.(의존 명사)

- 03 ‘것’을 ‘거’로 쓰는 것은 구어의 특징이다. 이러한 구어의 표현들은 모두 표준어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 구어에서는 문어와 달리 준말을 많이 사용한다.

‘재미있다’를 ‘재밌다’로, ‘마음’을 ‘맘’으로, ‘다음’을 ‘담’으로 줄여 쓴다.

② 어미 ‘-(으)ㄴ’은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어미 ‘-(으)ㄴ’을, ‘-(으)ㄴ’이 ‘수’로, ‘-(으)ㄴ’이 ‘가’로, ‘-(으)ㄴ’이 ‘고’ 등의 의문형 어미만 된소리로 적는다.

③ 문어에서는 ‘에게’와 ‘와/과’를 주로 사용하지만, 구어에서는 ‘한테’와 ‘랑’, ‘하고’를 주로 사용한다.

④ ‘이쁘다’, ‘꼬시다’, ‘빠지다’, ‘맨날’, ‘먹거리’ 등은 표준어로 인정받은 구어 표현이다. 이처럼 널리 쓰이는 구어 중 일부는 표준어의 지위를 얻기도 한다.

- 04 ‘꼬시다’가 표준어가 된 것은 <보기>로 보아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꼬시다’는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꼬시다’는 ‘이성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교제를 시작하다.’는 뜻으로 쓰여 ‘그렇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끝다.’의 뜻인 ‘피다’와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단어를 어떤 문장에서든 서로 바꿔 쓰기는 어렵다.

- 05 이 글에서 ‘너’를 ‘니’로 쓰는 것은 아직까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니’는 ‘네’로 고쳐 써야 한다.

- 06 <보기>의 ㉠ ‘두단 씹이나’에서 ‘단’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씹’은 ‘수량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러한 수량이나 크기로 나눈 단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따라서 ㉠의 ‘두단 씹이나’는 ‘두 단씩이나’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이’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뵈어서’로 고쳐 써야 한다.

② ㄷ 받침 뒤에 ‘-이’나 ‘-히’가 올 적에는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굳이’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놈’으로, 접두사 다음에 오는 거센소리는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평아리’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직접 인용을 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큰따옴표로 고쳐 써야 한다.

- 07 ‘만만찮다’는 ‘보통이 아니어서 손쉽게 다룰 수 없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따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따라서 ‘만만하지 않다’의 준말은 ‘만만찮다’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로 표기해야 한다.

② ‘청소해 돌꺀’가 아니라 ‘청소해 돌꺀’로 표기해야 한다.

③ ‘웬지’가 아니라 ‘웬지’로 표기해야 한다.

④ ‘매일같이’에서 ‘같이’는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의 기능을 하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08 ‘윗도리’는 ‘아래 옷’의 뜻을 지닌 ‘아랫도리’라는 말과 대립되므로 ‘윗도리’가 아니라 ‘윗도리’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거센소리 ‘터’ 앞에서는 ‘위터’로 표기한다.
 ②, ⑤ ‘윗잇몸’과 ‘윗눈썹’은 명사 ‘위’가 ‘몸’, ‘눈썹’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룬 경우이다. ‘아래’와 ‘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 앞에는 ‘윗’을 쓰므로, ‘윗잇몸’, ‘윗눈썹’으로 표기한다.
 ③ ‘웃거름’은 씨앗을 뿌린 뒤나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 주는 거름이다.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거름’의 경우에는 ‘웃거름’으로 표기한다.

- 09 ‘마구간(馬廐間)’은 3음절의 한자어로 되어 있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마구간은 [마:구간]으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제삿날[제:산날]: ‘제삿날(祭祀-)’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② 허드렛일[허드렌일]: ‘허드렛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③ 공기밥[공기뺨/공기뺨]: ‘공기밥(공기(空器)-)’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④ 조갯살[조개살/조개살]: ‘조갯살’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 10 ‘맑게’는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이 ‘ㄱ’ 앞에서는 [ㄹ]로 발음되므로 [말게]가 아닌 [말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넓다’는 [널따]로 발음해야 한다.
 ②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므로 ‘발지’는 [ㅃ지]로 발음해야 한다.
 ③ 명사 ‘닭’과 조사 ‘과’가 결합한 것이므로 ‘닭과’는 [닥파]로 발음해야 한다.
 ④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는 [ㄹ]로 발음하므로 ‘읽고’는 [일꼬]로 발음해야 한다.

- 11 ‘의의’의 첫음절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의]로 발음한다. ‘의의’의 둘째 음절 ‘의’는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의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의]의 발음을 정확하게 적었다.	☐
첫째 음절의 ‘-의’와 둘째 음절의 ‘-의’의 발음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 12 문학 작품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국어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는 문학 작품으로, 구어체의 느낌을 살려 ‘네가’를 ‘늬가’라고 표기하였다. 그리고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구어체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문어체만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3 ㉠ ‘문상’은 문화 상품권의 줄임 말이고, ㉡ ‘생축’은 생일 축하의 줄임 말이다. 그리고 ㉢의 ‘생파’는 생일 파티의 줄임 말이다. 이처럼 가상 공간에서 줄임 말을 쓰는 것은 글자 입력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것과 창의적으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쓰면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줄임 말임을 알고 이와 관련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
글자 입력을 빠르고 쉽게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
재미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

대단원 평가 문제 ①

210~214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②	06 실
질 형태소: 지금, 남, 땅, 빼앗-, 들, 봄, 오- / 형식 형태소: 은, 의, -기-, -ㄴ, 예, 도, 은, -는가	07 ②	08 ①	09 ③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③	15 ①	16 ②	17 ③
18 ④	19 ③				

- 01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모두 체언에 해당하며,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에 변화가 없다.

【오답풀이】 ①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이다.
 ③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것은 수사이다.
 ④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은 대명사이다.
 ⑤ 체언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때로는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온다고 했으므로 수사와 명사, 대명사 모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 02 ‘누구’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부정칭)가 아니라,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미지칭)이다.

- 03 <보기>에서 ‘선생님’은 보통 명사이면서 자립 명사이다. ‘한들’과 ‘다섯’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어디’는 잘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당신’

은 재귀칭 인칭 대명사, ‘것’은 의존 명사이다.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다. ‘지호’는 고유 명사이다. 따라서 ㉠, ㉡, ㉢는 명사, ㉣, ㉤, ㉥는 대명사, ㉦, ㉧는 수사이다.

- 04** ㉠의 ‘동생의 숙제’는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하여 ‘동생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조사는 대개 체언 뒤에 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나 조사, 용언 또는 문장 뒤에 붙기도 한다. 하지만 ㉠~㉣의 자료를 통해 조사가 체언 외에 부사, 조사, 용언에 붙는지 여부를 탐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조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오답풀이| ㉠, ㉡, ㉢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뉜다. ㉠은 격 조사, ㉡은 접속 조사, ㉢은 보조사이다. ㉠의 ‘가’는 주격 조사, ‘에서’는 부사격 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의 ‘와/랑/하고’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 조사이다. ㉢의 ‘은’은 앞말에 대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국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조사라고 한다.

- 05**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이다. 그리고 형태소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 06**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부분으로 명사나 용언의 어간인 ‘지금, 남, 땅, 빼앗-, 들, 봄, 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이므로 조사나 접사, 용언의 어미인 ‘은, 의, -기-, -ㄴ, 예, 도, 은, -는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07** ‘흘러가는’은 ‘흐르다’의 어근 ‘흐르-’와 ‘가다’의 어근 ‘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 ‘유유히’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드높은’은 ‘심하게’ 또는 ‘높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새하얀’은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신비롭다’는 ‘그려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08** ‘개살구’는 살구보다 맛이 시고 뚱은 개살구나무의 열매로서 이때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개금, 개꿀, 개떡, 개먹, 개철쭉’ 등이 있다. ‘헛된’ 또는 ‘쓸데없는’의 뜻을 지닌 접두사 ‘개-’가 쓰인 단어의 예로는 ‘개꿈’의 ‘개-’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개나발, 개수작, 개죽음’ 등이 있다.

- 09** ‘놀이방’은 어근 ‘놀이’와 ‘방’이 결합한 합성어로 접미사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글짓기’와 유사한 단어의 예로 볼 수 없다.

- 10**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는 ‘-던지’가 아니라 ‘-든지’이므로 ‘싫든지 좋든지’는 맞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 ‘금새’는 ‘금세’로 고쳐야 한다. ‘금시에’의 준말은 ‘금새’가 아니라 ‘금세’이다.
 ㉡ ‘웬지’는 ‘웬지’로 고쳐야 한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의미하는 관형사이다. ‘왜 그런지 모르게’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웬지’가 아니라 ‘웬지’로 쓴다.
 ㉢ ‘똑똑하데’는 ‘똑똑하대’로 고쳐야 한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 ‘잘하대’는 ‘잘하데’로 고쳐야 한다.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 11** <보기>를 통해 ‘밤’을 길게 발음하면 밤나무의 열매인 ‘밤:〔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밤나무’의 ‘밤’은 열매인 ‘밤’의 의미로 쓰였고 첫음절에 쓰였으므로 길게 발음해야 한다.

- 12** 파찰음이 파열음에 비해 딱딱한 느낌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울림소리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안울림소리는 딱딱한 느낌을 준다. 비음과 유음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에서 울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울림 소리이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안울림소리이다.

|오답풀이| ㉡, ㉢, ㉤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마찰음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이다.
 ㉣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 거센소리가 되고,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 된소리가 된다. 예사소리는 목의 근육을 긴장시키지도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도 않는다.

- 13** ‘늘’의 ‘ㄴ’과 ‘수’의 ‘ㅅ’은 모두 잇몸소리로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 위치 곧 조음 위치가 같다.

|오답풀이 ① ‘른’에서 ‘ㄹ’은 잇몸소리이므로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
 ② ‘른’의 ‘ㄹ’과 ‘늘’의 ‘ㄴ’은 모두 올림소리로서 입안이나 코안에서 올림이 일어나는 소리이다.
 ④ ‘은하수’에서 ‘ㅎ’과 ‘ㅅ’은 모두 마찰음이므로 두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⑤ ‘쪽배’에서 ‘ㅂ’은 ‘ㅃ’으로 소리나므로 ‘ㅈ’처럼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어 소리를 내는 된소리이다.

14 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이고, 중모음인 것은 ‘ㅟ’이다.

|오답풀이 ㉠에는 ‘ㄱ’이, ㉡에는 ‘ㄴ’이, ㉢에는 ‘ㄷ’이, ㉣에는 ‘ㅌ’이 들어가야 한다.

15 ‘참회’에 들어 있는 모음은 ‘ㅏ’와 ‘ㅓ’인데 이들은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다.

|오답풀이 ‘당뇨’에서는 ‘ㅛ’가, ‘돼지’에서는 ‘ㅞ’가, ‘순례’에서는 ‘ㅙ’가, ‘병원’에서는 ‘ㅟ’가 이중 모음이다.

16 ‘맑음’이 [말금]으로 발음되는 것은 기존의 음운에 변화가 없으므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꽃’: [꼇]으로 발음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에 해당한다.

③ ‘숨이불’: [숨:니불]로 발음되며, ‘ㄴ’ 첨가, 첨가에 해당한다.

④ ‘먹히다’: [머키다]로 발음되며, 자음 축약, 축약에 해당한다.

⑤ ‘입에’: [이베]로 발음되며, 연음 현상에 해당한다. 앞 음절의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발음되는 것을 연음 현상이라고 한다. 연음 현상은 음운 자체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17 자음이나 모음이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는 탈락 현상에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ㄹ’ 탈락, 모음 탈락 등이 있다. ㉠ ‘떠서(뜨-+-어서)’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이처럼 용언 어간의 끝 모음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 ‘끓어’는 [끄러]로 발음되며, ‘ㅎ’이 탈락한 것이다. ‘ㅎ’ 탈락은 용언의 어간 말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 ‘엷는’은 [언는]으로 발음되며, ‘ㅅ’이 탈락한 것이다. 이는 음절 말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가 나는 자음군 단순화이다.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할 때, 앞엿것이 탈락하기도 하고 뒤엿것이 탈락하기도 한다. ㉣ ‘노세(놀-+-세)’는 어간의 자음 ‘ㄹ’이 탈락한 것이다. 용언의 어간 말 자음 ‘ㄹ’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ㄹ’ 탈락이라고 한다.

|오답풀이 ① ‘쌓지’는 [싸치]로 발음되며,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④ ‘높히다’는 [누피다]로 발음되며,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⑤ ‘눈요기’는 [눈노기]로 발음되며, ‘ㄴ’ 첨가에 해당한다.

18 ‘닭과[닥파]’에서 ‘닭’이 [닥]으로 소리 나는 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한 것이다.

|오답풀이 ⑤ 겹받침 ‘ㄹ’이 ‘읽고’에서는 [ㄹ]로 발음하고, ‘읽지’에서는 [ㄱ]으로 발음된다. 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는 원칙대로 발음되지 않고 [ㄹ]로 발음된다.

19 소설에서 방언은 지역성을 잘 드러내며 실제 대화를 듣는 듯한 생생한 구어의 느낌을 준다. (가)에는 전라북도의 지역 방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 이러한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어 쓴다면 지역성도 잘 드러나지 않고, 생생한 구어의 느낌이 덜 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는 문학 작품으로 지역 방언이 나타나 있고, (나)는 가상 공간에서 사용된 말로 줄임 말 등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언어이다.

② (가)에서는 ‘ㅏ’를 ‘ㅘ’로, ‘ㅓ’를 ‘ㅚ’로, ‘ㅗ’를 ‘ㅜ’로 발음하고 있다.

• 사람만치로 → 사람만치로 • 중국이한테 → 중국이한테

• 자수하거라 → 자수하거라 • 몰르니께 → 모르니까

• 하기만 → 하기만 • 초조하게 → 초조하게

• 솔직히니 → 솔직히니 • 후련히니 → 후련히니

• 너한테 → 너한테

④, ⑤ (나)에 사용된 언어 표현을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면 글자 입력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2

215~219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②	08 ①	09 ④	10 ②	11 ①	12 ②
13 ③	14 ⑥는 음운 탈락 현상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놓던’이 [노틴]으로 소리 난 것은 ‘ㅎ’과 ‘ㄷ’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 ‘ㅌ’으로 줄어든 것이므로 ⑥는 ‘탈락’이 아니라 ‘축약’의 예이다.	15 ⑤			
16 ③	17 ⑤	18 ①			

01 <보기>의 문장에서 ㉠ ‘친하다’, ㉡ ‘재미있다’, ㉢ ‘흥미롭다’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형용사로 볼 수 있다. ㉣ ‘주다’, ㉤ ‘새다’, ㉥ ‘읽다’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며, ㉣ ‘주다’는 ‘준다’로, ㉤ ‘새

다'는 '샌다'로, ㉠ '읽다'는 '읽는다'로 현재 시제 선언어미 '-는-/-ㄴ-'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동사로 볼 수 있다.

- 02** '벗다'는 '올어', '우니'와 같이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지만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규칙 활용은 '벗다, 벗어, 벗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와, '갈다, 갈아, 가니'와 같이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져도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짓다, 짓고, 지어, 지으니'와 같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불규칙한 것, 어미가 불규칙한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것이 있다.

▶오답풀이 ㉠ '파랳다'는 '파래', '파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불규칙 활용이다.

㉢ '읽다'는 '읽어', '읽으니'와 같이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 '갈다'는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져도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의 예이다.

㉤ '돕다'는 '도와', '도우니'와 같이 어간이 불규칙하게 활용하고, '푸르다'는 '푸르려'와 같이 어미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불규칙 활용이다.

- 03** '저기'는 체언을 꾸미지 않고, '저기에'처럼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관형사로 볼 수 없다. '저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오답풀이 ㉡ '두', ㉢ '첫'은 수 관형사이다.

㉣ '새'는 성상 관형사이다.

㉤ '이'는 지시 관형사이다.

- 04** '결코'는 '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 부사라 할 수 있다. '정말'은 '더웠다'라는 서술어를, '이리'는 '와라'라는 서술어를, '사뿐사뿐'은 '걸어서'라는 서술어를, '갑자기'는 '쏟아지는'이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 05** ㉠은 파생어이고, ㉡은 합성어이다. ㉠의 예로는 어근 '행복'에 접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 '행복하다'가 적절하다. ㉡의 예로는 '뛰다+놀다'의 합성어인 '뛰놀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 '젊은이'는 '젊다'와 '이'를 합성하여 만든 합성어. '맨발'은 접사 '맨-'이 어근 '발'에 결합된 파생어이다.

㉡ '도둑질'은 어근 '도둑'에 접사 '-질'이 붙은 파생어. '조용히'는 어근 '조용'에 접사 '-히'가 붙은 파생어이다.

㉣ '돌개바람'은 어근 '돌개'와 '바람'이 결합된 합성어. '온종일'은 어근 '온'에 '종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잡아먹다'는 '잡다'와 '먹다'가 결합된 합성어. '자유롭다'는 어근 '자유'에 접사 '-롭다'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06** '깜놀'은 '깜(썩) 놀(라다)'의 줄임 말이다. '심쿵'은 '심(장이) 쿵(하다)'의 줄임 말이다. '깜놀'과 '심쿵은'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든 경우이다. 그러나 '꽃미남'은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새말이다. '꽃미남'은 '꽃'과 '미남'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얼굴이 예쁘고 곱상하게 생긴 남자를 뜻한다.

▶오답풀이 ㉠ '혼밥'은 '혼(자) 밥(을 먹음)'의 줄임 말이다.

㉡ '강추'는 '강(력) 추(천)'의 줄임 말이다.

㉢ '셀카'는 '셀(프) 카(메라)'의 줄임 말이다.

㉤ '버카충'은 '버(스) 카(트) 충(전)'의 줄임 말이다.

- 07** (가)에서 우리말에는 유의어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나)에서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는 공통된다고 하였다.

㉢ (다)에서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하의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 (나)에서 반의 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의미가 대립되는 관계라고 개념을 밝히고 있고, 그 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 상하 관계는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라고 개념을 밝히고 있고, 그 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비슷하나 똑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 08** ㉡ '줄어들', ㉢ '적어지기', ㉣ '감소'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므로 상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오답풀이 ㉡ ㉢와 ㉣는 유의 관계인데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비슷하나 똑 같지는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와 ㉣는 유의 관계에 있으므로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하다.

㉣ ㉣와 ㉣는 반의 관계로,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오직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는 공통된다.

- 09**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의미가 대립할 때, 이들을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한다. ㉣의 '생물-동물'은 상하 관계이고, '배우다-익히다-공부하다'는 유의 관계이다.

- 10** <보기>에서는 억양이 문장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말하는 이의 차이가 문장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가 달라지더라도 문장의 내용과 맥락, 억양 등이 같을 경우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 11 <보기>는 된소리되기의 예이다. ㉠은 종성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은 어간 말 자음 ‘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오답풀이| ②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④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 12 ‘신라[실라]’에서는 음절 끝소리에서, ‘실내[실래]’에서는 음절 첫소리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유음화가 주로 음절의 첫소리에서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햇살’은 [헛살], ‘얼굴빛’은 [얼굴빔]으로 소리 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절한 예이다.

- ③ ‘밥물[밤물]’, ‘걷는다[건는다]’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설날[설랄]’, ‘대관령[대궐령]’에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④ 비음화와 유음화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앞이나 뒤에 오는 자음의 성질을 닮아 변동하는 동화에 해당한다.

- 13 ‘한류’는 [할류]로 발음되며, ‘ㄴ’이 ‘ㄹ’로 교체되었다. 음운 교체의 유형 가운데 유음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믿는다’는 [민는다]로 발음되며,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음운 교체의 유형 가운데 비음화에 해당한다.
② ‘대나무밭’은 [대나무반]으로 발음되며, ‘ㅌ’이 ‘ㄷ’으로 교체되었다. 음운 교체의 유형 가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④ ‘국밥’은 [국뽕]으로 발음되며, ‘ㅂ’이 ‘ㅍ’으로 교체되었다. 음운 교체의 유형 가운데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⑤ ‘끝이’는 [꼬치]로 발음되며, ‘ㅌ’이 ‘ㅊ’으로 교체되었다. 음운 교체의 유형 가운데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14 ‘농턴’이 [노틴]으로 소리가 난 것은 ‘ㅎ’과 ‘ㄷ’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 ‘ㅌ’으로 줄어든 것이므로 ‘탈락’이 아니라 ‘축약’의 예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농턴’이 음운의 탈락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
‘농턴’에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 아니라 축약임을 언급하였다.	☐

- 15 명사 ‘위’와 ‘사람’이 결합되어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윗-’으로 표기해야 하므로 ‘윗사람’으로 표기한다.

|오답풀이| ①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혼동하는 경우로, ‘재떨이’가 아니라 ‘재떨이’가 바른 표기이다.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하여 표기 오류가 발생한 경우이다. ‘료’와 ‘름’은 모두 [림]으로 발음하지만 ‘무름쓰다’로 표기해야 한다.

③ ‘ㄹ’ 탈락이 일어나야 할 용언의 활용형에서 ‘ㄹ’을 탈락시키지 않는 오류가 나타난 경우이다. ‘녹슨’은 ‘녹슬-+-은’이므로 어간의 ‘ㄹ’을 탈락시켜 ‘녹슨’으로 표기해야 한다.

④ ‘ㄹ’ 탈락이 일어나야 할 용언의 활용형에서 ‘ㄹ’을 탈락시키지 않는 오류가 나타난 경우이다. ‘아시고’는 ‘알-+-시고’이므로 어간의 ‘ㄹ’을 탈락시켜 ‘아시고’로 표기해야 한다.

- 16 어미 ‘-(으)ㄹ걸’은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할걸’은 ‘할길’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맨날’은 구어적 표현이지만 표준어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쳐 쓸 필요는 없다.

② ‘똥’은 ‘똥이’의 준말이며, ‘똥’은 어미가 아니라 의존 명사이므로, ‘똥 죽은 똥’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똥 죽은 똥’은 매우 조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라 ‘ㄴ’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따라서 본말 그대로 ‘되었으면’으로 쓰거나, 준말인 ‘됐으면’으로 적어야 한다.

⑤ ‘그림’은 ‘떡’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를 써야 한다.

- 17 <보기>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로 발음해야 하므로, ‘희미하다’, ‘하늬바람’은 반드시 [히미하다], [하늬바람]으로 발음해야 한다.

- 18 ‘뒗뜰’은 순우리말 ‘뒗’과 ‘뜰’이 결합된 말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지만 뒷말 ‘뜰’의 첫소리가 본래부터 된소리이므로 사이시옷 없이 ‘뒗뜰’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② ‘갯잎’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갯닙]으로 소리 나므로 1-(3)의 예이다.

③ ‘땃마당’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툰마당]으로 소리 나므로 1-(2)의 예이다.

④ ‘자릿세’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자리쎄/자리썰]로 소리 나므로 2-(1)의 예이다.

⑤ ‘예삿일’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예산닐]로 소리 나므로 2-(3)의 예이다.

고득점 평가 문제

220~221 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⑤
07 ① 08 ⑤

- 01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높여서 그 내용을 꾸며 주는 단어이고,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㉔의 '이': 체언(명사) '사과'를 꾸며 주는 단어로 관형사이다.

㉕의 '그': 체언(명사) '책'을 꾸며 주는 단어로 관형사이다.

㉖의 '여기':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단어로 대명사이다.

㉗의 '이리': 용언(동사) '우는'을 꾸며 주는 단어로, 부사이다.

㉘의 '그리': '그곳으로 또는 그쪽으로'를 뜻하는 단어로 부사이다.

02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의 '크다'는 '기대나 생각이 보통 정도를 넘다.(상태)'라는 의미이므로 형용사이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크다.'의 '크다'는 '자라다(작용)'라는 의미이므로 동사이다.

03 '끓주리다'는 '끓다'와 '주리다'가 결합된 말로, 동사의 어간 '끓-'에 연결 어미 '-고' 없이 바로 동사 '주리다'가 연결되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굳-+-은+살'로 구성된 '굳은살'은 용언 '굳-'이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여 체언 '살'을 수식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② '어깨동무'는 명사 '어깨'와 명사 '동무'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길짐승'은 기어 다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길짐승'은 '기다'의 관형사형 '길-'에 명사 '짐승'이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앞서다'는 '앞에 서다'가 줄어든 말로 '앞'과 '서다'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앞'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

04 '차도녀'는 '차가운 도시 여자'의 줄임 말로, 각 어절의 첫 음절만 떼어 결합시켜 만든 새말이다. '차도녀'의 구조는 '차(가운)+도(시)+여(성)'이고, 도도하고 쌀쌀맞은 분위기의 세련된 젊은 여자를 뜻한다. 이때 '차'는 '차갑다'의 첫 음절일 뿐 용언의 어간 '차갑-'과 다른 형태이므로, 용언의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엄지족'은 명사 '엄지'에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휴대 전화로 메시지를 빠르게 쳐서 보내는 사람들을 뜻한다. '엄지족'의 구조는 '엄지+-족'이다.

② '꽃미남'은 '꽃'과 '미남'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얼굴이 예쁘고 곱상하게 생긴 남자를 뜻한다.

④ '훈밥'은 '훈자서 밥을 먹음.'의 줄임 말이다.

⑤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생각과 사물이 생겨나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말을 만들며, '엄지족, 꽃미남, 차도녀, 훈밥'은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새말에 해당한다. 새말은 줄임 말, 합성, 파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05 'ㄱ'과 'ㄴ'은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ㄱ'은 중모음, 'ㄴ'은 저모음이다. 따라서 'ㄱ'을 발음할 때 'ㄱ'보다 혀의 최고점의 높이는 더 낮게 해야 한다.

06 '술잎'은 '술잎 → 술납 → [술립]'의 과정을 거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않더라'는 탈락 현상이 아니라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㉑은 2회, ㉒은 3회, ㉓은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㉑은 '닭과 → 닭과 → [닥파]'의 과정을 거친다.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㉒도 '술잎 → [술납] → [술립]'의 과정을 거친다. 'ㄴ' 첨가(첨가), 유음화(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난다. ㉓은 '밟는 → 밟는 → [밟느]'의 과정을 거친다.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② ㉑은 된소리되기, ㉒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㉓은 비음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③ ㉑과 ㉓에서는 탈락 현상이, ㉒에서는 축약 현상이 나타나면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④ ㉑, ㉓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음절 말의 두 자음 중 'ㄹ'이 탈락하였다.

07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어미 '-르게'는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할게요'로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어미 '-(으)르길, -(으)르수록' 등이 있으며, '-(으)르까, -(으)르꼬' 등의 의문형 어미만 된소리로 적는다.

|오답풀이| ② '하든지'로 고쳐야 한다.

③ '어떡해'로 고쳐야 한다.

④ '바라'나 '바란다'로 고쳐야 한다.

⑤ '넉넉지'로 고쳐야 한다.

08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에 오는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는 '-던지'이다. ㉔에서는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 '-든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로 고친 것이다.

4 매체 언어의 탐구 및 활용

(1)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

학인 문제

227~229쪽

1 ⑤ 2 복합적, 누구나 3 ④ 4 소설, 영화

- 1 책과 신문은 문자 언어,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시각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풀이| ① 다수의 대중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신문과 텔레비전이다.

②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은 생생한 현장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문에 비해 정보가 실재감 있게 전달된다.

③ 신문은 제한된 마감 시간과 지면 때문에 책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

④ 텔레비전은 영상, 음향, 문자 언어(자막), 음성 언어 등으로 정보를 구성한다. 음성 언어, 음향, 소리를 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매체는 라디오이다.

- 2 인터넷은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하이퍼링크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한다. 그리고 인터넷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개방성 때문에, 인터넷에는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용할 때에는 그 정보의 타당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3 매체 자료는 매체 언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동일한 메시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즉 ㉠과 ㉡은 모두 현혈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은 '현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주제인 현혈의 필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나, ㉡은 현혈을 할 때 원활한 혈액 순환을 위해 손을 쥐었다 펴는 행위를 제시하여 암시적으로 현혈을 주제로 한 광고임을 드러내고 있다. ㉡에는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 4 심미적 가치는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과 내용이 조화를 이룰 때 잘 드러나며, 매체 자료에 따라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인쇄 매체인 소설은 주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심미적 가치가 드러난다. 그러나 영상 매체인 영화는 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 음악, 촬영 각도, 장면의 배열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심미적 가치가 드러난다.

소단원 평가 문제

240~243쪽

01 ⑤ 02 ④ 03 ④ 04 ㉠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매체이기 때문이다. ㉡은 인터넷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면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실재감 있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05 ④ 06 ④ 07 ③

- 01 제한된 마감 시간과 지면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어려우며,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신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바)에서 매체에 따라 전달하는 정보와 정보의 구성 방식이 달라지며, 각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라)에서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은 생생한 현장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문에 비해 정보가 더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된다고 설명하였다.

③ (나)에서 일반적으로 책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④ (다)에서 신문은 책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지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02 인터넷은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정보의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즉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도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고, 소비자는 검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정보의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개방성 때문에 <보기>와 같이 인터넷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맞짓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② <보기>는 생산된 정보에 소비자가 속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정보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는 맞짓과 관련한 정보의 문제점만 다루고 있으므로 쉽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⑤ <보기>의 내용으로는 인터넷의 정보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없다.

- 03 (나)의 신문은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 및 제작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문은 긴급한 기상 변화가 발생했을 때 라디오나 인터넷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가)의 라디오는 일기예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다)의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기예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를 통해 오늘의 날씨 예보, 지역별 기상 특보 안내, 낮 최고 기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오늘의 날씨, 지역별 날씨 예보, 강수 예보, 생활 지수, 밀물과 썰물 등 좀 더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②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은 시의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③ (다)는 인터넷으로, 날씨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댓글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다)는 정보의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는 음성 언어로, (나)는 문자 언어, 그림(지도), 도표 등으로, (다)는 문자 언어, 그림(지도), 영상 등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04** ㉠과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매체인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 같은 상황에서는 화면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실재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인터넷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구체적인 매체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해당 매체를 선택한 이유를 각 매체의 특성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 05** 매체 자료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표현을 사용하면 수용자가 생산자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나아가 심미적 가치도 느낄 수 있다. (나)에서는 매체 자료의 창의적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심미적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매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06** (가)에서는 '서하'의 목소리가 '아름'의 머릿속에서 자꾸 메아리쳐 울리는 것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메아리쳐 자꾸 울렸다.'라는 글로 직접 서술하였다. 이에 비해 (나)에서는 '서하'의 목소리가 '아름'에게 환청처럼 들리는 장면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였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는 '서하'로 상상되는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보이는 장면을 보여 주며 '아름'의 내면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생각이 구체적인 글로 표현되어 있고, (나)는 구체적인 설명 대신 다양한 기법으로 촬영·편집된 장면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심미적 가치가 잘 드러난다.

③ (나)는 영상 매체이므로 영상, 음향,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등

을 사용하고, (가)는 인쇄 매체이므로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

⑤ (가)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생각이 구체적인 글로 표현되어 있어 독자가 '아름'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구체적인 설명 대신 배우의 말이나 독백, 행동, 음악, 카메라의 움직임과 구도,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아름'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를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관객이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07** 대구법, 동음이의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이 광고에는 '소음통', '주차통', '흡연통', '소통' 등과 같이 '통'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알고 나누고 친해지고 정들고'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매체 자료의 수용

확인 문제

245쪽

- 1** 관점, 가치 **2** (1) 실용적 (2) 예술적 가치

- 1** 글쓴이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 매체 자료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2** 패션쇼 모델에 대한 예시를 통해 심미적 관점과 실용적 관점에서 각각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텔레비전 드라마의 폭력적 장면에 대한 예시를 통해 심미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에서 각각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53~255쪽

-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5**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 **06** ① **07** ③ **08** ④

- 01** 이 글에서 매체의 종류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에 대한 답을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현대 사회에서 매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③ (가)와 (다)에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④ (나)에서 예술적 가치,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여 매체 자료를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매체 자료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관점, 매체 언어가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⑤ (나)에서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여 드라마를 평가하는지,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여 드라마를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텔레비전 드라마를 수용하는 관점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02 매체를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했는지 매체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므로, ⑤는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03 ㉔는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평가하고 있다.

04 드라마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등장인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민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수용자가 공감할 수 있었으므로 ④는 적절한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도깨비 설화’라는 전통적 모티프를 드라마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서 느끼는 신선함은 드라마의 예술적 가치를 중시한 평가 내용이다.

② ‘도깨비의 불멸의 삶’, ‘주인공의 죽었어야 할 운명’ 등과 같은 드라마 내용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것은 드라마를 심미적 측면에서 감상한 내용이다.

③ ‘환상적인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것은 드라마의 예술적 가치를 중시한 평가 내용이다.

⑤ ‘아름다운 영상, 의미 있는 대사, 가슴을 울리는 배경 음악’ 등은 드라마의 예술적 가치를 중시한 평가 내용이다.

05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에 제시되어 있다. (다)에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고,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음을 썼다.	☐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할 수 있음을 썼다.	☐

06 참정권 행사를 일찍 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견해, 투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4개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점, 투표에 일찍 참여할수록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제시하여 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07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인구 구성의 특성 등을 배제하고, 무조건 선진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선거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③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영상물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인구 구성의 특성 등을 배제하고, 무조건 선진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선거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08 ‘반짝반짝’은 웹툰의 실용성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매체 자료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늬바람’은 매체 자료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을 뿐, 매체 자료가 지닌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3) 매체 자료의 생산

확인 문제

257~258쪽

1 ㉠, ㉡, ㉢ 2 ④ 3 ② 4 ③

1 적절한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목적과 수용자, 매체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가)는 친구들과 근황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누리 소통망(SNS)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사회적 소통을 하기 위해 매체 자료를 생산하였으므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소통의 목적이다.

3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수용자의 요인에는 연령, 성별, 배경지식과 관심사, 인원수 등이 있다. 그러나 수용자의 성격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수용자의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4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의 연령과 성은 어떠한지, 수용자가 다수인지 소수인지,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지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용자의 다양한 특성 중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으므로, 관심사보다 연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문제

268~271 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⑤ 11 소통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미세 먼지의 정확한 개념과 인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미세 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인 소통의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수용자의 특성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할 점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전체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④ 매체별 언어적 특성을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마지막 문단에 매체의 특성에 따라 매체 자료의 파급력이 달라진다는 언급은 있지만,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은 아니다.

⑤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서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2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은 생산자와 연계를 맺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글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통 행위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3 파급력이 큰 매체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왜곡이 담겨 있는 경우 잘못된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퍼질 염려가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 정보의 양, 난이도, 매체의 특성,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 등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지만 파급력이 큰 매체의 내용을 구성할 때 꼭 검토해야 하는 요소로 보긴 어렵다.

- 04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가)는 다양한 시각 자료, 문자 언어(자막), 음성 언어(진행자의 설명)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중가요인 (나)는 음악의 운율에 맞추어 언어를 배열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음성 언어로 전달된다.

|오답풀이| ① (가)의 목적은 요리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맞지만, (나)의 목적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아니라 심미적 정서 표현이다.

② (가)의 주된 수용자는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연령층을 '성인'으로 한정지를 수는 없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은 모두 수용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용자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엄마' 혹은 '집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내용이므로 '청소년'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느껴 본 다수의 성인들을 수용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가)는 텔레비전이므로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 프로듀서 등을 생산자로 볼 수 있다. (나)는 대중가요이므로 음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작곡사, 작사가 등을 생산자로 볼 수 있다.

⑤ 두 매체 모두 파급력이 큰 매체이다.

- 05 (다)는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글쓴이가 자신이 다녀온 맛집에 대해 작성한 글이다. 글쓴이가 작성한 글에는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있는지, 아기 의자가 있는지 등과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④의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인터넷 블로그'의 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자와 수용자의 소통, 즉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쓰인 글로 볼 수 있다.

② (다)는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인이 맛집에 다녀온 뒤 작성한 글이다.

③ 생산자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고 가 본 맛집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글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글의 주된 수용자 계층은 육아를 하는 부모, 즉 성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와 난이도를 쉽게 조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6 이 신문 기사에 명사로 종결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신문 기사이므로 표제 및 육하원칙 구성, 인용 표현 등 기사문 고유의 언어적 특성을 보인다.

- 07 수용자는 전교생, 즉 한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사회 소식지와 누리집에 진로 박람회의 개최를 알리는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 소식지보다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 학교 소식지 등 학교 내의 정보 전달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08 예상 독자인 학생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의 주된 관심사는 '지수'가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을 담은 사진을 제시한다면 '지수'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많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09 이 카드 뉴스는 미세 먼지의 정확한 개념과 인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미세 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 주기 위해 생산한 자료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 및 미세 먼지가 일으키는 질병,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이 카드 뉴스는 미세 먼지에 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미세 먼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6'에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 먼지에 더 취약한 계층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만을 고려하여 카드 뉴스의 내용을 구성한 것은 아니다. 카드 뉴스는 미세 먼지의 영향권에 있는 대다수의 일반인,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만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 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1 이 카드 뉴스는 정보 전달이 소통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세 먼지의 정확한 개념과 인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미세 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카드 뉴스의 소통 목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
이 카드 뉴스의 내용을 근거로 소통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

(4) 매체의 영향과 문화

확인 문제

273~274 쪽

1 파급력 2 ④ 3 대중 매체 4 ⑤

1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 글의 의미가 구현되고 유통되느냐에 따라 의미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글이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그리고 매체 언어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매체 언어를 통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2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는 의사소통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그 파급력도 매

우 높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글이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등 더욱 신중한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3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로,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책,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이 모두 대중 매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4 대중문화는 대량 전달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답풀이| ①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

② 대중문화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③ 대중문화는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향유할 때 대중문화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사회의 지배적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④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281~283 쪽

01 ② **02 ⑤** **03** 인터넷의 글과 사진은 인쇄물과 달리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차이가 없고, 무한정으로 복제하여 재배포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04 ④** **05 ⑤** **06 ①**
07 ② **08 ②**

01 이 글에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 글의 의미가 구현되고 유통되느냐에 따라 의미의 파급력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권위'나 '정보의 신뢰도'보다는 '매체의 종류'가 의미의 파급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2 전학 온 친구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잘못된 행동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매체는 글이나 사진이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파급력도 큰 편이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초상권과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오답풀이** ① 제시된 정황을 보아,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아니다.
- ② 전학생의 중학생 때의 사진은 상업적 성격의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전학생의 사진은 자극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④ 전학생의 중학교 때 사진이 맞으므로,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것은 아니다.

- 03** 인터넷의 글과 사진은 인쇄물과 달리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차이가 없고, 무한정으로 복제하여 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차이 없음을 썼다.	☐
무한정으로 복제하여 재배포할 수 있는 특성을 썼다.	☐

- 04** 인터넷 매체는 원본의 복제가 쉽기 때문에 누리 소통망(SNS)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기>의 정보는 실제 소방관으로 일하는 삼촌이 소방관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소개해 준 것이므로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05**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생겨난 문화 현상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생겨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상업적인 성격의 대중문화도 있지만, 대중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서적 측면의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중문화도 있기 때문이다.

- 06** <보기>에 텔레비전 드라마의 상업성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중 매체는 전달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매체를 수용하는 대중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기>는 대중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로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문화에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탓에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②, ④ <보기>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다루기보다는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이에 의존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③ <보기>를 통해 상업 광고, 대중가요의 가사,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성을 상품화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를 통해 대중문화는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대표적인 대중 매체인 영화를 통해 대중 매체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 매체는 전달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매체를 수용하는 대중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기>는 대중 매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로 대중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 08** 타지에서 온 학생들의 주거 공간 부족, 저상 버스의 필요성, 임산부의 주차 공간 마련 등은 특정 이익 집단에만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정중앙'이 특정 집단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많다고 말한 내용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단원 평가 문제

286~291 쪽

- 01** ⑤ **02** ② **03** ④ **04** '소음통', '주차통', '흡연통', '소통' 등과 같이 '통'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5** ⑤ **06** ⑤ **07** ④ **08** ②
- 09** ③ **10** 인터넷과 같은 파급력이 큰 매체 언어를 활용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위의 대화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링크의 주소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1** ①

- 01** <보기>는 어떤 이론을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책은 만드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면의 제약이 크지 않아,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또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책은 어느 정보 전문성을 갖춘 필자가 내용을 제공한다. 어떤 이론을 심도 있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 전화나 텔레비전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인터넷 매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에 유용한 매체이다. 따라서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인터넷 매체로, 문자 언어, 그림(지도), 영상 등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③ 인터넷의 특징 중 하나는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보기>에서도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날씨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④ <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날씨를 설명하는 영상 뉴스, 지역별 현재 날씨, 기상 특보 안내, 날씨 정보에 대한 사람들

의 댓글(의견), 세계 날씨, 대기 환경 정보, 관심 지역의 날씨 정보 등이다.

⑤ 인터넷의 정보 제공 방식은 선조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비순차적인 검색을 허용한다.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에서 특정 문자나 그림에 다른 문서를 연결하여 놓은 것이다. 특정 글자나 그림을 클릭하면 이와 연결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웹페이지의 특정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와 하이퍼링크되어 있는 다른 페이지로 즉시 이동할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은 월드 와이드웹(www)을 통해 전 세계의 서버 컴퓨터를 넘나들 수 있게 된다.

03 (가)에서는 ‘서하’가 보낸 편지를 문자 언어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서하’가 보낸 편지를 읽는 ‘서하’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가)에서는 ‘서하’의 목소리가 ‘아름’의 머릿속에서 자꾸 메아리쳐 울리는 것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에서는 ‘서하’의 목소리가 ‘아름’에게 환청처럼 들리는 장면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였다.

(가)는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생각이 구체적인 글로 표현되어 있어 독자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심미적 가치가 잘 드러난다. (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대신 다양한 기법으로 촬영·편집된 장면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심미적 가치가 잘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각 매체별로 창의적인 표현 방식이 각기 다르게 드러난다. 따라서 (나)에 매체의 창의적 표현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② ‘아름’의 감정이나, ‘서하’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나)보다는 (가)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가)는 문자 언어로 ‘서하’와 ‘아름’의 상황이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나)는 ‘서하’의 편지를 통해 ‘서하’의 상황이나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만, ‘아름’의 심리는 표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매체를 통해 정서적인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나)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광고는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소음통’, ‘주차통’, ‘흡연통’, ‘소통’ 등과 같이 ‘통’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통’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
동일한 말을 반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을 제시하였다.	☐

05 (가)의 생산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느껴 본 다수의 성인들을 매체 자료의 수용자로 보고 있다. (나)의 생산자는 부대찌개를 끓이는 요리 방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님들’, 즉 자신의 블로그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매체 자료의 수용자로 보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가)는 대중가요로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는 인터넷 블로그로 문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식을 소재로 생산된 매체 자료이다. (가)는 엄마의 집밥이 매체 자료의 소재이고, (나)는 부대찌개 가게가 매체 자료의 소재이다.

④ (가)의 수용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심미적 정서 표현이 목적이다. (나)는 맛집에 방문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회적 상호 작용이 목적이다.

06 ‘은동이는’ 음주 방송 장면이나 관련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은동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용할 때 예술적 가치보다는 매체 자료의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여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07 <보기>의 웹툰에는 통속적인 내용이나 상투적인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가 규범적 가치 측면에서 웹툰의 통속적인 줄거리와 상투적인 장면을 비판할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동일한 웹툰을 수용하더라도 관점과 가치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여 웹툰을 평가한다면 조선 시대의 역사 속 인물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설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여 웹툰을 평가한다면 웹툰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08 인터넷 매체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원본을 무한정으로 복제하고 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개인 블로그는 취향이나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공간이므로,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에 비해 의미의 파급력이 작다.

③ 방송 매체나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인쇄 매체도 대중 매체에 해당하며, 대중 매체는 모두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수 있다.

④ 대중문화에 어떤 부정적 속성이 있다면 그러한 측면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수용해야 한다.

⑤ 대중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대중문화를 이해할 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은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09 인터넷 매체는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보나 작품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제시된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⑤ '앵그리'는 언어 예절을 지키고 있지 않다. 매체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②, ④ '라이어'는 부정확한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등 더욱 신중한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10 인터넷과 같이 파급력이 큰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보기>의 대화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링크의 주소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링크를 누르기만 해도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야 할 경우, 파급력이 큰 매체 언어를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언어의 파급력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긍정적인 역할을 언급하였다.	☐
링크의 주소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11 <보기>에서 영화 「귀향」의 시나리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원작을 뛰어넘는 각본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영화는 오랜 기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대중이 자발적으로 영화의 제작비를 모금함으로써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보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막대한 홍보 비용 덕분에 흥행에 성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에 가속도가 붙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이라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02 (가)는 광고문, (나)는 대중가요로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요를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반면에 (다)는 여행에 관심이 있는 수용자들이 여행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방문하는 블로그로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된 것이다. 특히 (다)의 내용 중 '이웃님'이라는 호칭을 통해 이 글이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다)의 경우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관계를 맺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내용의 파급력이 가장 작으며, 상대적으로 (가), (나)의 파급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대중가요는 MP3 파일의 복제 등을 통해 쉽게 재생산이 가능하며, (다)의 경우는 인터넷 언어의 특성상 수시로 수정 및 재생산이 가능하다.

③ (가)는 여행 상품의 판매, 즉 설득을 목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나)는 여행에 대한 감성적인 가사와 음악을 바탕으로 한 심미적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④ (가)에도 시각 자료와 더불어 구어적 성격이 드러난 문자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나)도 구어적 성격이 강한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03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본래의 기획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긴 하지만 제시된 시청자의 의견만으로는 해당 대중 매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고득점 평가 문제

292~293쪽

01 ⑤ **02** ⑤ **03** ③

01 ①은 블로그의 글로 글쓴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쓴 글이므로 신뢰도가 높은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시된 그래프는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므로 '환경 오염의 진행 속도

5 국어 자료와 매체 언어생활

(1) 시대에 따른 국어 자료의 이해

확인 문제

299~305쪽

1 ⑤ 2 차자 3 ④ 4 ③ 5 (1) ○ (2) × 6 (1) -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2) -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3)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7 나ㅎ 8 ⑤ 9 ⑤ 10 (1) × (2) ○ 11 ① 12 ⑤ 13 ②

-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에서 ‘고대 국어로부터 중세 국어,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이 변화의 폭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하였으므로 고대 국어부터 중세 국어 사이 국어 변화의 폭이 가장 크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적을 마땅한 문자가 없어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를 사용하였다.
- 고대 국어 시기에는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하였고(ㄹ), 향찰이라는 차자 표기를 이용하여 향가를 기록하였다(ㄴ). ㄱ과 ㄷ은 중세 국어 시기의 특성에 해당한다.
- ㉠에서 ‘伊(저 이)’는 한자의 음인 ‘이’를 이용하여 우리말 ‘이’를 표기한 것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 (1) 향찰은 한자의 뜻이나 음을 이용하여 향가를 기록하는 차자 표기법이다.
(2) 향찰은 한자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다. 향찰은 실질 형태소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한자의 뜻을 빌리고, 형식 형태소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렸다.
- (1) ㉠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을 사용하여 부사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2) ㉡에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청자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3) ㉢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하늘 황제’를 높이고 있다.
- ‘나ㅎ’은 명사 ‘나ㅎ’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 ‘므슴홀·다’의 현대어 풀이가 ‘무엇하려느냐?’이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르다’가 미래 시제의 의문형 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9 ‘바도리라’는 어근 ‘받-’에 선어말 어미 ‘-오-’와 ‘-리-’, 어말 어미 ‘-라(←다)’가 결합한 것이다.

- (1) 현대 국어의 표현 중 ‘정신이 사납다.’, ‘팔자가 사납다.’, ‘꿈자리가 사납다.’ 등에서 ‘사납다’가 중세 국어 ‘사오납다’의 의미와 유사하게 ‘상황이나 사정 따위가 순탄하지 못하고 나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의 ‘사오납다’가 현대 국어 ‘사납다’의 의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바도리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에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를 사용하였다.
- 현대어 풀이의 ‘스승님이십니다’를 참고할 때, 빈칸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들어 가야 한다.
- [A]의 ‘ㄱ·리디’와 ‘ㄱ리지’를 통해 근대 국어에서는 구개 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ㄱ. ‘알는다’의 현대어 풀이가 ‘알는다’이므로 근대 국어에서는 ‘-ㄴ다’가 평서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ㄴ. ‘누뇨, ㅎ노냐’에서 보듯이 근대 국어의 의문형 어미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 중세 국어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분부혔소오니’에서와 같이 근대 국어에 이르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문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311~313쪽

01 ④ 02 ‘아수 - 아우 - 아우’로 배열할 수 있다. ‘아수’는 중세 국어, ‘아우’는 근대 국어, ‘아우’는 현대 국어에 해당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② 08 ⑤ 09 ㉠은 중세 국어 시기에 [바이]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 국어 시기에 ‘ㅞ’는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이다. 10 ⑤

- 〈보기〉에서 고대 국어에 ‘길다’라는 단어가 존재했는데, 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어서 한자 ‘吉’을 이용하여 차자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고유어 ‘길-’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 ‘吉(길할 길)’의 음인 ‘길’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 ‘아수’는 중세 국어에만 존재하던 음운인 ‘ㅅ’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 시기의 어휘이다. ‘아으’는 ‘ㅅ’이 표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둘째 음절에 ‘ㅅ’이 표기되었으므로

로 근대 국어 시기의 어휘이다. ‘아우’는 ‘·’가 ‘ㅁ’로 변하였으므로 현대 국어 시기의 어휘이다.

03 (나)와 (다)를 참고할 때, 『隱(숨길 은)』은 조사 ‘는’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辭(말 사)는 ‘말’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都(도읍 도)』는 조사 ‘도’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去(갈 거)』는 ‘가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가)의 밑줄 친 한자 중 음으로 읽힌 한자는 『隱』과 『都』이다.

04 ㄱ. (나)의 ‘나는, 가나다, 가느 낫고’ 등에서 중세 국어 시기에 모음 ‘·’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ㄴ. (나)의 ‘가느 낫고’가 (다)에서 ‘갑니까’로 풀이되므로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의문형 어미로 ‘-고’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ㄷ. (나)의 ‘가나다’가 (다)에서 현재형인 ‘간다는’으로 풀이되므로 중세 국어 시기에는 동사의 현재형을 ‘-느다’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ㄴ. (나)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 표기는 찾을 수 없다.

05 ‘나홀’은 ‘나ㅎ+올’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는 ‘나ㅎ’과 같이 끝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있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ㅎ’을 유지하지 않지만, 몇몇 복합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암뜰(암ㅎ+똥 → 암뜰>암뜰), 안팎(안ㅎ+밖 → 안팎>안팎), 살코기(술ㅎ+고기 → 살코기>살코기), 머리카락(머리ㅎ+가락)’ 등이 그 예이다. ‘요컨대’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의 뜻을 지닌 부사로 끝에 ‘ㅎ’을 가진 단어와는 관련이 없다.

06 ㉠은 ‘무엇하려느냐’의 의미이므로 어미 ‘-르다’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의 의문문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중세 국어에서는 ‘(병이) 깊다, (병이) 중하다’를 ‘되다’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 ‘되게’를 ‘아주 몹시’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비수보디’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고 있다.

㉢ 주격 조사 ‘이’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일 경우 ‘네’와 같이 그 모음과 합하여 적었다.

㉣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 ‘바도리라’와 같이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를 사용하였다.

07 ㉠은 ‘하느냐’의 의미이므로 ‘-느다’가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된 것이고, ㉡는 ‘않는다’의 의미이므로 ‘-느다’가 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느다’가 2인칭을 주어로 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느다’가 지금과 같이 평서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8 ㉢은 어말 어미 ‘-쇼셔’를 사용하여 상대인 ‘왕’을 높이고 있다.

참고자료 ++ 중세 국어의 어말 어미

중세 국어의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가) 후다, 후이다 [평서형]

(나) 후녀, 후니잇가 : 훈다, 후다 : 훈가 : 후가 [의문형]

(다) 후라, 후쇼셔 [명령형]

(라) 후저, 후사이다 [청유형]

(마) 후도다, 후도소이다 [감탄형]

이들은 주로 중세 국어의 종결 어미를 ‘후라체’, ‘후쇼셔체’의 두 상대 높임법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평서형은 그 앞에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를 앞세울 수 있다. 중세 국어에는 ‘-다’ 이외에 ‘-니라’로 끝나는 특수한 평서형이 있었다. 의문형에서 ‘-녀’는 1, 3인칭 의문형 어미이고, ‘-느다, -ㅅ다’는 2인칭 의문형 어미이다. ‘-느가, -ㅅ가’는 간접 의문형 어미이다. 1, 3인칭 의문형 어미와 간접 의문형 어미는 물음말과 함께 사용될 때에 ‘-뇨, -니잇고, -느고, -ㅅ고’로 바뀐다.

09 ‘배’는 ‘바(명사)’와 ‘이(주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ㅼ’와 ‘ㅽ’가 지금과 같은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 모음이었으므로 각각 ‘[아이], [어이]’로 발음되었다. 따라서 ㉠은 중세 국어 시기에 ‘[바이]’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중세 국어 시기에 어떻게 발음되었는지 제시하였다.	☐
중세 국어 시기에 ‘ㅼ’가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 모음이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

참고자료 ++ 단모음의 변천

‘·’의 소실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다. 제1단계 소실은 ‘·’가 주로 ‘ㅡ’로 변한 것인데, 15세기에 이미 싹터서 16세기에 둘째 음절 위치에서 ‘ㅡ’나 ‘ㅏ, ㅑ’로 바뀐 것이다. 제2단계 소실은 17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되어 18세기에 완성되는데, 첫 음절 위치에서도 ‘·’가 ‘ㅏ’로 바뀌는 것이다. (중략) ‘·’의 소실값이 소실된 이후 18세기 말엽부터 시작하여 이중 모음이었던 ‘ㅼ, ㅽ’가 단모음으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근대 국어의 8개 단모음 체계인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형성된 것이다. 18세기에 일시적으로나마 ‘ㅣ, ㅓ, ㅕ, ㅗ, ㅛ, ㅜ, ㅠ’ 6개 단모음 체계가 있었기는 하지만, 근대 국어의 대표적인 단모음 체계는 8모음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세기 말부터 이중 모음이었던 ‘ㅚ, ㅟ’도 단모음으로 변하여, 현대 국어에 와서는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의 10개 단모음 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 이관규, 『학교 문법론』(도서출판 월인, 2010)

- 10 근대 국어 자료 1의 '7리지'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국어 자료 3의 '묵디'와 같이 아직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들도 보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문법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근대 국어 자료 1~4에서 모두 방점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② 근대 국어 자료 2의 '비가'를 통해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다만, 근대 국어 자료 3의 '島主'에서 보듯이 아직 주격 조사 '가'가 전반적으로 쓰이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근대 국어 자료 3의 '분부헛엿소오니'에서와 같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④ 근대 국어 4의 '뉘노, 후노냐'에서 보듯이 근대 국어의 의문형 어미가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와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이해와 생산

확인문제

315~318쪽

- 1 ① 2 사회 방언 3 (1) × (2) ○ 4 ① 5 ④
6 ① 7 국어 자료의 갈래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명확하게 국어 자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어 자료의 갈래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두 번째 문단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표준어도 필요하지만'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표준어가 적합함을 짐작할 수 있다.
- 2 언어 사용자의 지역 이외에도 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언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 3 (1)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은 성 차이가 아니라 성차별적 언어이다.
(2) 사회 방언은 특정 집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므로 사회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특정 집단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4 세 개의 발화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형태가 다른데, 그 이유는 각 발화 속 화자의 지역과 연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 5 [A]는 공고문으로 특정한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④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 글에 적

절한 언어적 특성이다.

- 6 기사는문의 기사를 내용을 좀 더 객관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ㄷ은 광고의 언어적 특성이고, ㄹ은 공고문의 언어적 특성이다.

- 7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국어 자료의 갈래별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국어 자료의 갈래별 특성을 알면 국어 자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어 자료의 갈래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325~327쪽

- 01 동일한 사람도 연령에 따라 점차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02 ③ 03 ② 04 ① 05 ④
06 ③ 07 ⑤ 08 ①

- 01 <보기>는 동일한 사람도 연령에 따라 점차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이 바뀌는 예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동일한 사람도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 02 지역 방언은 우리말의 역사와 변천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 그 가치가 크므로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
- 03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처럼 토론자가 특정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토론자가 솔직해 보인다고 했지만, 이는 표준어가 지역 방언에 비해 감정 전달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은 토론자가 사용하는 지역 방언과 동일한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토론자가 말한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는 것이지, 토론자의 발음과 발성이 부정확해서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⑤ 방언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지 널리 쓰이는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04 (가)에서 성차별적 언어는 성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성차별적 언어가 차별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표준언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나)에서 사회 방언의 차이를, 일탈을 위해서나 특정 집단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에 외국의 언어문화적 특성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 자료를 국어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긴 하지만, 번역되기 전 나라의 정서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직군 종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 05 피부색을 살색이라고 한 것은 인종 차별적 언어의 예이다.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것은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

- 06 국어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주체인 사람을 주어로 만든 문장(㉠)을, 무생물을 주어로 한 문장(㉡)보다 더 자연스럽게 여긴다.

참고 자료 ++

무생물 주어 관련 번역투

영어의 발상 체계와 한글의 발상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국어와 달리 영어에서 무생물 주어 구문이 자연스럽고도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한 번역 시에는 무생물 주어인 명사에서 동사를 유추해 문맥에 합당한 부사구(절)를 만들고 사람인 목적어를 주어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영어와 달리 국어에서는 무생물 주어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07 경어체 표현이 공고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고문은 알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하여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줄글 형식의 공고문에 경어체가 있다고 하여 핵심 내용이 잘 전달된다고 할 수 없다.

- 08 (나)는 다문화화를 하나의 소재로 다루고는 있지만, 글의 전체 주제는 다양한 계층의 화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가)는 하위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③ (나)는 다양한 실이 모여 행복을 만드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④, ⑤ (가)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 전달의 안내문이고, (나)는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자는,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공익 광고이다.

(3) 국어생활과 매체 언어생활의 성찰

확인 문제

329 쪽

1 (1) ○ (2) × 2 목적

- 1 (1) 무례한 표현이나 욕설, 차별 표현 등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2) 매체 언어생활을 할 때에도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 모두 중요하게 준수해야 한다.
- 2 매체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매체를 사용하는 맥락과 목적을 인지하고, 이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335~337 쪽

- 01 ② 02 ④ 03 ③ 04 <보기>의 학생은 친구(지우)에게 느낀 섭섭함을 전달하기 위해 누리 소통망(SNS)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 누리 소통망(SNS)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매체이므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05 ② 06 ⑤ 07 ① 08 ④ 09 ④

- 01 무례한 표현이나 욕설, 차별 표현 등은 언어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 02 <보기>는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 상품권)' 등의 줄임 말을 사용하는 '아들'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의 대화 상황을 보여 준다. '아빠'가 '아들'의 줄임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두 사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의 두 번째 문단에서 '통신 언어와 같이 사용 환경에 따라 의도적으로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 글의 글쓴이는 '아들'에게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해칠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 03 a는 '잠을 안 잤더니 눈이 감긴다.'로, b는 '어제 빌린 책은 내가 반납할게.'로, c는 '갈 곳 없는 수재민은 어떡하지?'로 고쳐야 한다. 이처럼 a~c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언어 규범 측면에서 반성해야 한다. d는 '설명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진지하게 설명하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꼬고 있으므로 언어 윤리 측면에서 반성해야 한다.

- 04 개인이 느낀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인 누리 소통망(SNS)에 올린 것은 맥락과 목적을 고려할 때 적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를 사용하는 맥락과 목적을 밝혀 올바르게 평가하였다.	☐
학생이 사용한 매체의 적합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였다.	☐

- 05 손 편지는 쓰는 사람의 정성이 반영된 매체로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맥락과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영리 목적으로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③ 대화 상대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직접 말로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④ 특정 학교의 휴교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적합한 매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⑤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개인적인 고민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맨송맨송’과 ‘맹송맹송’은 2011년 8월에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로서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이 벗어져 반반한 모양’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오답풀이| ① ‘김치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라는 의미의 어휘는 ‘담그다’이므로 ‘담은’을 ‘담근(담그- +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② ‘일이나 물건 따위가 어디에 꼭 맞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는 ‘십상’이므로 ‘십상이군’을 ‘십상이군’으로 고쳐야 한다.

③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를 의미하는 형용사는 ‘후텁지근하다’이므로 ‘후텁치근하다’를 ‘후텁지근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를 의미하는 동사는 ‘내로라하다’이므로 ‘내노라하는’을 ‘내로라하는’으로 고쳐야 한다.

- 07 ‘폼새/폼세’는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에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을 의미하는 명사로, ‘자장면/짜장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오답풀이| ② ‘부엌’이 표준어이다.

③ ‘설거지’가 표준어이다.

④ ‘언제나’가 표준어이다.

⑤ ‘깡충깡충’이 표준어이다.

참고 자료 ++

‘설거지’에 관한 표준어 규정 해설

‘설겅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겅어라, 설겅으니, 설겅 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쓰이지 않아 어간 ‘설겅-’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겅-’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겅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했다.

- 08 이 글의 두 번째 문단에서 ‘흔히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가리킬 때 ‘숙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어딘가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보기>의 자료가 욕설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연령이 높고 낮음에 따라 욕설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단원 평가 문제

340~343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② 05 ④ 06 초간본의 ‘ㄱ·리디’가 중간본의 ‘ㄱ리지’로 표기된 것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07 ② 08 ④ 09 ⑤ 10 ① 11 ④ 12 ⑤

- 01 (가)는 향찰로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향가를 기록한 것이므로 고대 국어에 해당한다. (나)는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에 해당한다. (다)는 ‘빅가’에서 주격 조사 ‘가’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근대 국어에 해당한다.

- 02 (나)의 ‘되어’는 ‘(병이) 깊어, (병이) 중하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 ‘되게’를 ‘아주 몹시’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03 ㉠과 ㉡는 모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높임의 대상은 다르다. ㉡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상대인 ‘아비(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 ‘아비’는 객체로 청자인 상대가 아니다. 왕천이 하늘에 빌며 말하는 것이므로 ㉠의 청자는 ‘하늘’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과 ㉡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술)-’이 쓰였다.

③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에서 ‘-옵-’이나 ‘-사옵-’처럼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현대 국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는 ‘-습누이다’ 또는 ‘-습누니이다’가 ‘-습니다’로 융합되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 04 중세 국어는 ‘너’에 주격 조사 ‘이’를 결합하여 ‘네’로 표기하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화된 ‘네’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여 ‘네가’의 형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네가’에 주격 조사가 중복되어 사용된 것은 아니다.

05 (가)의 ‘하느:다’의 현대어 풀이가 ‘하느냐?’이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ㄴ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알느다’의 현대어 풀이가 ‘알는다’이므로 근대 국어에서는 ‘-ㄴ다’가 평서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6 『두시언해』 초간본은 조선 시대 성종 12년(1481년)에 간행한 책이고, 중간본은 조선 시대 인조 10년(1632년)에 간행한 책이다. 이 두 자료는 150년 간에 발생한 국어의 변화를 보여 준다. <보기>의 자료에서 초간본의 ‘ㄱ·리디’가 중간본에 ‘가리지’로 표기된 점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구개음화가 발생한 사실을 제시했다.	☐
『두시언해』 초간본에서 ‘ㄱ·리디’를 근거로 제시했다.	☐
『두시언해』 중간본에서 ‘가리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

07 ‘학부모’는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에 비해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로 남성을 대표형으로 하는 성 차별적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촌놈’은 서울에 대비하여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낮잡아 보는 지역 차별 표현이다.

③ ‘여의사’는 남성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형을 파생시킨 것으로 언어 형식상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 지위에 두는 여성 차별 표현이다.

④ 성인에게 ‘훈혈아’라고 하는 것은 훈혈인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처럼 낮잡아 보는 인종 차별 표현이다.

⑤ ‘상경하다’는 ‘서울로 올라가다’의 뜻으로 서울 중심적 문화가 배어 있는 지역 차별 표현이다.

08 동료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말할 때에는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보호자는 의사가 사용하는 전문어를 잘 모를 수도 있으므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 표현을 선택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9 (가)에서는 글의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갈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매체 언어생활을 할 때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목적에 따라 적합한 갈래나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 (가)에 제시된 자료는 신문 동아리 신입 회원 모집이라는 특정한 내용을 알려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작성한 공고문이다.

11 다. ‘자장면’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아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ㄹ. ‘재원’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이므로, 여성에게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ㄱ. ‘날아’를 ‘나아’로 고쳐야 한다.

ㄴ. ‘썩맥’을 ‘숙맥’으로 고쳐야 한다.

ㄷ. ‘나아서’를 ‘날아서’로 고쳐야 한다.

12 ㉞에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전할 말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에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리 소통망(SNS)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인 것은 맞지만 공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득점 평가 문제

344~345 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1 <보기 1>의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참고할 때, (가)의 ‘누고’와 ‘누구’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누’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누’만 들어가야 한다.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면,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 즉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를 통해 이 두 단어 중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의 형태만 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중세 국어의 의문문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이 많다. ‘이 썩리 너희 중가’, ‘언논 藥이 므스것고’는 각각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이다. 중세 국어의 설명 의문문은 현대어와는 달리 ‘-고’를 취하였다. ‘앗가본 브디 잇느니여’, ‘이제 어디 잇느뇨’도 각각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중세 국어의 판정 의문문은 조사나 어미의 모음이 ‘-아, -어’이고, 설명 의문문의 조사나 어미의 모음은 ‘-오’임을 알 수 있다.

02 ‘퍼·디’를 통해 중세 국어 시기에는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어 적기는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표기 방법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말썩·미’와 같은 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② ‘이런’에서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고 있다.

③ ‘배’는 ‘바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이다.

④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돌 또는 그 이상의 자음

의 연속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쁘·들’의 ‘·쁘’와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03 중세 국어의 ‘거르샤’가 현대 국어의 ‘걸으시며’로 풀이된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현대 국어에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부텃’을 현대 국어에서 ‘부처의’로 표기하였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좁-’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④ 중세 국어 ‘거르물’은 현대 국어에서 ‘걸음을’에 해당한다. ‘걸음’과 ‘을’의 여형을 밝혀 적은 현대 국어에 비해 ‘거르물’은 이어 적기를 하였다. 이처럼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⑤ ‘배’가 현대 국어에서 ‘바가’로 표기된 것을 볼 때,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고, ‘이’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04 <보기>는 물을 아껴 쓰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 광고이다. ‘흐르는 세월은 멈출 수 없지만 흐르는 물은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에서 ‘세월’과 ‘물’을 대조하는 표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광고 문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팡이와 수도꼭지의 유사한 모양을 활용하고 있다.

05 <보기>의 안내문에서 내용의 객관성을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없다. 내용의 객관성을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은 주로 기사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